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국의 해님 아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식
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해님님의 자로
키우기 위해 재와 명을 주셔서 해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내
나 악하고 사탄의 방해가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온
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기도로 성령께서 능 강하게 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혼을 받을 것이니 네 자
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 54:13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2호 2011년 7월 1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마라톤과 같다!

라이프웨이 홈스쿨링 서포트넷, 잔 타일러의 10가지 홈스쿨링 훈련법 소개

홈스쿨링은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 실제로 '지프 겔러웨이'라는 마라톤 선수의 조언은 홈스쿨러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라톤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경기 자체와 마라톤 선수이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재를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원어에 해당하는 라틴어인 '큐레르'는 달린다는 뜻이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경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레이스 트랙과 달리 다른 한 가지 시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 가운데 실제로 무대를 준비하는 것은 어머니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홈스쿨링을 관리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홈스쿨링은 장거리 경주로 비유할 수 있다.

포인트 1: 달리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왜 이 경주를 달려야 하는가?"이다. 마라톤에서 자주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처음에 빠른 속도로 과속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금방 숨이 막혀버리기에 아무튼 신중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프 겔러웨이는 "먼저 달리는 목적을 발견해라"라고 말한다. 우리도 홈스쿨링의 목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홈스쿨링에 대해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고 교육에 대한 자신 자신의 철학을 써보라. 비전, 철학이라고 해서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다. 우선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제

시된 말씀을 써 보라. 그 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성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 보라. 이것은 학습이나 영적인 것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포인트 2: 달리는 이점을 알아야 한다
믿음의 끈, 학력, 가족의 끈, 두 번째로 이 경주가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서이다. 겔러웨이는 마라톤의 이점은 "지속적으로 달림으로써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홈스쿨링이라는 마라톤도 앞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이점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홈스쿨링을 시작한 1984년 당시,

나는 홈스쿨링의 긴 과정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홈스쿨링 세미나에서 한 가족을 만났다. 8명의 아이들 가운데 3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상당히 성숙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홈스쿨링의 비전을 뚜렷하게 받았던 것이다.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했다. 그 후 '앞으로도 홈스쿨링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갖게 됐을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10대 청소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포인트 3: 좋은 조연자, 참고서 세 번째 방법은 아이들에게 좋은 조연자, 트레이너를 찾아주는 것이

다. 마라톤 선수도 트레이닝 계획이 없으면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트레이너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보다 경험이 있는 홈스쿨러에게 도움을 받거나 책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홈스쿨링을 시작할 당시, 오직 한 권의 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책을 가지고 인도 해주셨다.
포인트 4: 좋은 장비, 교재 네 번째로 좋고 좋은 장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겔러웨이는 "달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발이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지역사회 필요 부응하는
지성전만 성장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



14면

건강칼럼
이수일 전도사(뉴욕한민교회)



16면

인터뷰
안광태 선교사(몽골)

사 고

아이폰 용 앱 출시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본지가 7월부터 애독자 여러분에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용 앱 출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 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모든 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 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오픈했습니다. 본지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PDF 지면보기를 누르시면 매주 발행되는 신문을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를 사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서비스를 계기로 애독자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앙증진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011년 전교인 여름수련회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 넘는 사람

2011년 7월 17일(주일)~ 7월 20일(수)
장소: Hudson Valley Resort



강사 김승천 목사

유림선교정보센터(CIME)대표
파리 동북프 장로교회 담임목사
에세이 '오른손 들는 왼손' 뒷문을 막아라' 저자

이주 한인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담임 장영춘 목사

718.886.4040 /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하프 타임 (Half Time)



송상헌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며 짧은 하프 타임에 후반전의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감독들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운동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 인생, 또한 신앙생활도 전, 후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밥 버포드(Bob Buford) 목사는 인생 하프 타임에 대하여 귀한 가르침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전반에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쏟지만 후반에는 성취감보다는 삶에 가치와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2011년의 전반을 정신없이 뛰어온 것 같습니다. 7월 4일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의 불꽃놀이로 올해의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의 세레모니(ceremony)가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너무 바쁘다보니 전반전이 마치는 호각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이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당한 쉼도 없이, 후반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리며 계속 질주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달리다보면 어느새 육신은 지치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영적으로는 무더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의 승부는 후반전에서 나뉠 것입니다. 전반의 사역을 발판 삼아 후반에 더 총만하고 보람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의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올해를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1)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잠 3:5-6). (2)내면을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고 아름답게 세우야 합니다(잠 4:23; 벰전 1:22). (3)비전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펼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해 무릎 꿇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사 55:1-3; 렘 33:3). (4)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엢 6:10-18). 매일의 삶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정욕을 다스리며,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벰 4:5).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담장을 넘어서야 합니다(막 10:45).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관용의 삶입니다.

주어진 하프타임을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조금은 천천히 가십시오. 영육에 필요한 쉼을 얻으십시오. 전반의 결과에 안타깝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6개월이라는 후반을 주시하십시오. 모든 것은 후반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믿음의 동료들과 인생의 경기장(field)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후반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필요 부응하는 지성전만 성장 (支聖澑)

CT, 대형교회 지성전 체제 구축에 따른 찬반 논란 소개

교회공동체에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선교와 교육, 문화 활동, 지식전달은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에서 송출하는 예배 프로그램으로 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일찍이 지적돼 왔다.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고 설교자와 교인들과 함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지고지선의 정성을 드러서 경배하는 행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위 잘나가는(?) 미국 대형교회들 중 이미 멀티 사이트 형식으로 지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는 주 경계를 넘어, 모 교회의 예배와 담임목회자의 리더십까지 프랜차이즈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크리스천티 투데이(CT)는 일부 대형교회들에서 일고 있는 지성전 체제 열풍에 대한 찬반 논란을 보도(Multi-Site Churches Go Interstate: Megachurches expand across state lines)해, 지역사회의 요구나 필요에 부응하는 지성전만이 모 교회의 브랜드나 담임 목회자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소위 "지성전 예배"를 실시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성전 제도는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현실이므로 본당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차피 이 사람들을 교육관 등 부속건물에 수용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해당 지역에 지

치이즈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르스힐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새로운 지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포틀랜드 시는 많은 것들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

그런데 문제는 마르스힐교회만이 지성전들을 주 경계를 넘어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형교회들이 너도나도 지성전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오콜라호마, 애드몬드의 라이프교회(Lifechurch.tv)는 오콜라호마에 10개 그리고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주에 하나씩 도합 14

난 모든 지성전들이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은 않다.

2005년 라이프교회와 피닉스 시 외곽에 설립한 지성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교회 바비 그루월드 목사는 지성전 체제는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찾아야 하고, 지역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구

모교회 예배와 담임목회자 리더십까지 프랜차이즈화 복음 본질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외면당해

성전을 세워, 멀리 떨어진 교회까지 오는 거리와 시간상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자는 필요에 따라 세워진 것이 지성전이기 때문이다.

시애틀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마르스힐(Mars Hill)교회는 최근 포틀랜드,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오렌지카운티에 지성전을 건축해 동 교회의 라이브 워십 예배와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송출하기로 결정했다.

마르스힐교회의 결정은 현재 대형교회들 중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즉 독특한 예배 유형과 소위 "인기목회자" 또는 "베스트셀러 담임목회자"의 설교를 그대로 첨단장비로 송출해 새로운 지역에서 만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하는 입장에서 주 경계를 넘어 지성전 체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프랜

이즈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르스힐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새로운 지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포틀랜드의 에버그린커뮤니티교회 담임, 밥 하이야트 목사 역시 시애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정한다. 그러나 마르스힐교회의 선교방식 즉 마르스힐교회 체제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지역상가에 월마트(Wal-Mart)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과 동일하다고 세속주의적 교회 확장 전략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그는 모 교회를 떠나 다른 주에 이식된 지성전의 지속기간(?)에 우려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성전들이 지역사회에서 교인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 교회의 유명하고 잘 나가는 담임목회자의 인기도에 성장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개의 멀티사이트 캠퍼스 교회들로 구성돼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가까이 있는 시코스트교회(Seacoast Church) 역시 3개 주에 13개의 교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테네시, 브랜즈의 대형교회(Bethel World Outreach Center)는 최근 텍사스 주로 그 경계를 넓혀 피닉스와 달라스에 지성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모 교회를 떠나 주를 벗어

나 모든 지성전들이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은 않다. 2005년 라이프교회와 피닉스 시 외곽에 설립한 지성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교회 바비 그루월드 목사는 지성전 체제는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찾아야 하고, 지역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구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 Fax(213)380-5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Fall Semester 2011. Includes university logo, contact info, and a list of degree programs like Bachelor of Religion and Master of Divinity.

Large advertisement for '담임목사 청빙' (Pastor Recruitment) by the Philadelphia Korean United Church of Christ. Details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featuring a subscription offer and contact details for the Los Angeles and New York offices.

목적과 비전 확실하게 하라!

라이프웨이홈스쿨링 서포트넷, 잔 타일러의 10가지 홈스쿨링 훈련법 소개

(1면에서 계속)

신발을 고를 때는 발에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한다. 동일하게 홈스쿨러인 부모도 중요한 교재를 선택할 때 그 가정에서 쓰기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 5: 자기 속도로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페이스로 달린다는 것이다. 홈스쿨링은 장기 경주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하거나 약간의 속도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용하는 근육을 바꿈으로써 장거리를 달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선 홈스쿨링을 시작하기 전에 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속도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게 하면 된다.

포인트 6: 인내를 가지고

여섯 번째는 인내를 기르는 것이다. 홈스쿨링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물론 홈스쿨링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훌륭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홈스쿨링과의 양립이 어려울 때는 쉬는 것도 필요하다. 힘을 가지면서 부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써 보기를 권한다. 성경 속에는 인내에 관한 훌륭한 말씀들이 있는데 부디 그 말씀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포인트 7: 현실적인 기대

일곱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없고 쉽게 짜증을 낸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트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다음 주가 되면 나무가 돼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아이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

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열매를 맺기 전에 뿌리를 박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 밤으로 그 성과를 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토대를 쌓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포인트 8: 유연성

여덟 번째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립학교에서는 스케줄이나 커리큘럼은 고정되어 있고 집단 지도에 획일적이다. 아이 한 명 한 명에 맞추는 유연성이 없다. 그러나 홈스쿨링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

변경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에 되도록이면 완벽한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홈스쿨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좋다.

포인트 9: 친구들의 격려

아홉 번째는 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홈스쿨링은 홈스쿨러들끼리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 문제가 있어 좀처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은 좋은 기회이다. 서로 기도하면서 돕는 홈스쿨링 가족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포인트 10: 그리스도야말로 능력의 근

원

마지막으로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다. 마라톤 선수에 있어서 수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도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수이며 생명의 떡인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결론으로, 홈스쿨링을 하다보면 반드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진짜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 때로는 주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두면 좋다. 그리스도는 우리 힘의 원천으로써 늘 함께 계시는 분이러신 것이다.

나는 이미 홈스쿨링 마라톤을 마쳤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에 충실한 분이셨다. 세 명의 아이들은 지금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두 명의 아들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내를 얻어 일에 전념하고 있다. 막내딸 리지는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홈스쿨링 사역은 아이들의 영혼이 걸려 있는 긴급한 사역이다. 여러분은 지금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전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정말 짧다. 이 마라톤은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아이들도 어릴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에 충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와 손에 손을 잡고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필요 부응하는 지성전만 성장

(2면에서 계속)

시코스트교회의 지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프 킨니 목사 역시 대형교회의 브랜드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한다. 제프 목사는 지성전에 투입해 모 교회의 예배 경험이나 프로그램을 가능한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최상의 목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 교회와 밀접한 접촉, 모 교회의 브랜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시코스트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야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베델교회는 주가 다른 지성전에 동 교회의 예배가 아닌 담임목회자들이 하여금 설교나 예배를 직접하게 하고 행정적인 문제들, 사례비 지급이나 교회 재정담당은 모

교회 행정실에서 맡는 방식으로 지성전을 운영하고 있다.

결론으로, 지성전 체제를 감행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독립교회이건 교단에 속한 교회이건 그리고 지성전이건, 지역사회에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만을 내세운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방법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지성전 체제를 옹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태도는 교회들로 하여금 급속히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며 가장 큰 특징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다. 이는 교인 수나 교회당 크기나 재정 규모와 전혀 관계가 없다. 진실한 교회는 진지한 예배, 교회 공동체내의 공평한 나눔, 가식 없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선교는 이러한 드러남의 은총이 선교의 대상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진실한 신앙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이를 성장시키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만일 어느 교회 공동체가 선교와 성장을 병자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적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세속화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따라서 마르틴루터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들의 지성전 바람은 어느 정도 그 열기가 가신 후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마음에 들리는 영의 음성을 분별하며... 시편 53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판단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리들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반드시 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요일 4:1).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도 진리도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좋다, 싫다의 자신의 주관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차원에서 진리는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고 하였습니다. 즉 왕이 없이 각자 왕 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왕 노릇하고 판단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불행입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유행 따라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들게 되는 여러 소리를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라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버리고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3절에는 “이는 원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즉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로서 로마서에서는 이를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롬8:6-7). 원수의 소리에 특성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소리를 듣고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신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시험이 오면 바로 빠져 버립니다. 사망의 소리를 들으면 그 결과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임으로는 그대로 주어 주어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복잡하여지며 생명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면 사망의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 회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잡다한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리에 영향 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에 영향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을 육신의 소리와 구별하여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품음이 충만할 때에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품어 육신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는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마음에 충만하도록 열심히 품어서 그 충만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도록 생각의 노동을 통하여 충만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뿌려주신 양식인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먹어 그 힘으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풍족하게 거두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먹으면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소리는 거두지 말고 생명의 말씀은 항상 넘치게 마음에 거두어 먹어서 그 힘으로 삽시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능력이 되시는 그 양식을 열심히 먹으십시오.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임의로 주신 그 응답을 누리면서 삽시다. 아멘.

뉴욕중부교회

장학생 모집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환으로
 알찬 교육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신한 일꾼을 세우는데 한몫을 담당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1년도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이 돈독한 자

선발인원: 10명 (각각 \$10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 교회 소정양식, www.nyjbc.org 참조)
 2. 담임목사 추천서
 3. 신앙 간증서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1년 7월 24일(주일)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함)

수여 날짜 및 장소: 2011년 8월 14일(주일) 예배시간 (9:30, 11:30AM)
 뉴욕중부교회당

신청서 보내실 곳: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중부교회 장학위원회 앞

문의: TEL, 718,279,2757 FAX, 718,279,1823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뉴욕중부교회 장학위원회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속히 오리라”는 약속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예시록 22:7, 20)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은 이 약속을 하신지 2천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속히”라는 말의 헬라어 “tachus”는 크게 두 가지, 즉 “soon, without delay”와 “suddenly, by surpri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soon, without delay”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곧 오기를 원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천국 복음이 아직 땅 끝

까지 증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마태복음 24:14, 사도행전 1:8),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면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suddenly, by surprise”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

될 때까지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일단 재림이 시작되면 회개할 틈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3절을 읽어보십시오. 재림에 관한 비유로서, 신앙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일단 오시는 일이 시작되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마태복음 24:36-44). 우리에게 그 날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마태복음 24:14).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푸/른/초/장

박동서 목사

(세크라멘토 방주선교회 담임)



는 부모, 꾸준만 하는 부모보다 더 문제가 많은 부모가 무관심하게 방임하는 부모입니다.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며, 성도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목사는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천하만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과 징계를 하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 모두 다 궁극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히12:7-11).

둘째, 타락한 세상(Fallen World)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해 있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 때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됩니다. 교회

물리지 않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TV를 지나치게 시청하거나 인터넷에 탐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좋은 책들을 많이 읽도록 하십시오.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지만, 영적인 고전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과 징계를 하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 모두 다 궁극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히12:7-11).

셋째, 사명자(Man of Mission)의 삶을 사십시오.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Calling)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위대한 사명(Great Mission)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고난보다도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목회자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존심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사표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나 야망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목회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생각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고난은 때로는 영적인 고난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인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좌절과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낙담케 하는 말과 의심케 하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육신의 고난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들의 삶을 보면, 중병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중단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고난 뒤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없는 목회는 주님의 목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다면, 반드시 역경과 고난의 숲을 지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을 예상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5면으로 계속)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전파(설교와 성경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덕목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며 강조합니다.

1)꾸준함(Consistency)이 목회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은 신학교 수업 때문에 학교캠퍼스에 가있던 날을 제외하고 지금껏 새벽예배를 하루도 빠뜨린 날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꾸준함이야말로 목회자의 바른 영성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말씀사역이 목회사역의 중심이고 기초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교회성장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형교회의 외적인 화려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되

계를 삼으라고 하신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그 심오한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오래 참음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6:9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개정개역)

3)바르게 권면(Careful Instruction)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목양하려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며, 많이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칭찬만 하

를 지키고, 성도들을 악하고 부패한 세상의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세상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교 강단이 허탄한 세상 이야기나 전하며 성도들의 웃음이나 자아내는 곳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진실한 목회자는 자기의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허약해진 영적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 먹여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열려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면 세상적인 악한 영향에

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엡 1:17-19).

셋째, 사명자(Man of Mission)의 삶을 사십시오.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Calling)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위대한 사명(Great Mission)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이야기

비울수록 채움받는 교회



박동서 지음 / 296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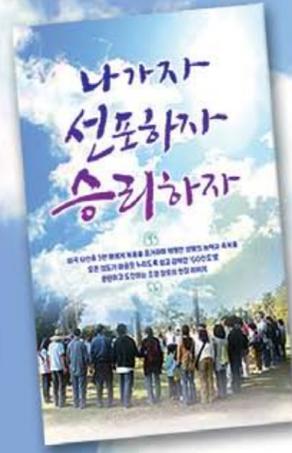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담임 박동서 목사 칼럼집

비울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뜻대로 하려 하면 목회가 힘들어졌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부복사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니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다. 성도들과 가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박동서 목사 (Rev. Thomas Park)

현재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담임 목사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를 꿈꾸며 가정교회 사역에 힘쓰고 있다.
• 서울대 공대 졸업(공학사) • 서울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Oregon대 대학원 졸업(MBA)
• Westminster 신학대학원 졸업(Philadelphia, M., Div.) • 카자흐스탄 선교사임마리 캄즈교교회



조영 지음 / 228면 / 10,000원

나가지 선포하자 승리하자

열방을 주님께로-GO전도법

미국 타인종 5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체험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모든 성도가 마음껏 누리도록 쉽고 강력한 'GO전도'로 훈련하고 도전하는 조영장로의 현장 이야기



조영

그는 워싱턴 주 사애틀에서 대학과 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MBA)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링과 마케팅회사로 경영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미국침례교회를 섬기는 동안 복음을 향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고 'GO and Proclaim (가서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LA 선랜드(Sunland) ANC 온누리교회의 전도사역 담당 장로로 섬기면서 LA에 훈련된 GO전도사역자들을 세워 10여 개의 지역에서 매주 지속적인 노방전도를 통해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GO! 전도선교회 홈페이지: www.GO91.com; www.GoNow.org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고, 세계
선진국 G20모임을 주관했다. 한국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임이 되고,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
계를 누빈다. LPGA, PGA 골프대회에
서 한국인의 위세가 대단하다. 더 나
아가서 영국의 BBC방송이 보도한대
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삼성, LG,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아니고 이제는
케이팝(K-pop)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케이팝은 한국의 팝뮤직이다.
케이팝은 Korean pop 혹은 Korean
popular music이라고 한다. 케이팝은
전자, 힙합, 팝, 록(rock)과 R&B가 함
께 어우러진 퓨전음악이다. 지금까지
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자신을 세계
에 알리기 위해서는 대형 방송국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었다. 하
지만 인터넷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의 발
달로 이제는 하나의 마켓만을 가지게
되었다. 글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는 글로벌 마켓이다.

한국의 케이팝이 프랑스 공연에 일
으킨 센세이션으로 온 세계가 다시
놀라게 되었다. 일본과 동남아에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우리 젊은
이들이 어른들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심을 거시
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버릴 것
이 없다. 헬라문화의 장결은 알렉산더
의 비전이었지만 세계가 헬라어 문화
권으로 통일됨으로 성경을 헬라말로
기록하고 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통
로가 되게 하였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파스 로마나의 정치적인 통일
과 안정은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대로가 되게 하였다. 중세의
르네상스 운동은 세속적인 운동이었
지만 하나님은 고전을 그리워하는 사
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셨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준비작업을 하신 셈이다. 또
한 인쇄술의 발달은 상업적인 의도로
이루어졌지만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
을 보급하게 하고 종교개혁의 확산
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세계에 퍼지는
한류도 한국의 브랜드가 된 K-Pop으
로, 또한 한국 스포츠로 새 지평선을
여심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
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을

지난 7월 6일 IOC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으로 결정
되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열정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원하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
패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다시 도전하여 12년 만에 마침내 평
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것도 여
러 가지 기록을 깨는 쾌거를 주셨다.
올림픽유치 역사상 최다득표로, 그것
도 1차투표에, 절대다수의 63표로, 3
번의 도전 끝에 유치가 성공한 것은
잠으로 기쁜 일이다.

한국의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
함으로써 한국은 스포츠의 대국으로 위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위 스포츠계
에 Big-4라고 불리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그리고 세
계육상선수권대회를 다 개최한 6번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
평선 끝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
들에게 대한민국 같은 번영의 나라가
새 지평선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제3제
계의 나라들도 도약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가 되었
으면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이
었고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는 고동당하던 민족이었다.
이스라엘처럼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
에 낀 말그대로 한이 맺힌 고난의 역
사이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시고 100년전에 복음을 주시더니 복
음이 씨이 나고 꽃을 피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1988년 하계 올림픽과 2002년 월드
컵을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 소개
해 주셨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IMF



한국을 통해 새 지평선을 여시는 하나님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시아
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개최
함으로써 한국이 세계스포츠에 큰 영향
력을 보이는 나라로 성장했다. 동계올
림픽 유치 준비위원회가 프리젠테이
션 테마로 삼은 것은 "새 지평선(New
Horizon)"이었다. 세계의 시대적인
의미와 투표하는 위원들에게 감동을
준 메시지가 되었다. 유럽 중심의 동계올
림픽에 새로운 지평선이 열어야 하고
그것은 한국과 같은 동계올림픽의 변
방에서 열려야 한다는 진심의 호소가
IOC회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다.

마치 한국의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
팅의 불모지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
서 꽃을 피운 피겨의 여왕이 된 것처럼
그런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한
세계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야 한다는 감동적인 비전의 제
시이었다.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하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기뻐할 경
사 중의 경사이다. 앞으로 잘 준비하
여 결단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는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이 치러
지게 되기를 소원한다. 동계 올림픽
은 앞으로 7년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전 세계로 다시 도약하

를 극복하고 10대 강국 안에 드는 기
적도 주셨다.

한국의 경제적인 확장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한국인들을 보내셨다. 유대
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우
리는 핍박받지 않고 전세계로 나가게
하셨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자녀교육
을 위하여, 정치적인 상황을 피하여,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등의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
로 나갈 수 있도록 움직여주셨다. 이
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루어졌
다.

하나님은 한국사람들이 가는 곳마
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
다. 때로는 힘을 합치지 못하고 갈라
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지역마다 교회
들이 많이 세워졌다. 조국 대한민국
이 경제적으로 성장함과 함께 선교
사들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들어주셨
다.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2위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회국이 되게 하
셨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대단지만
그 성공의 비결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미 현지에 있는 디아스포라교회가 전
진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유럽에도 넘치
게 된다. 한국의 K-Pop에 맞추어서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노래하
고 춤을 추는 클럽들이 성행한다.
유럽의 방송들도, 프랑스 공용방송도
신년특집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한국
을 소개했다. 인터넷의 유튜브, 페이
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확산으로 라
틴 아메리카의 페루, 브라질, 멕시코,
각 나라에서 케이팝 열풍으로 뜨겁다.
동구권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한
국의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을 요청하
는 시위들이 일어난다. 인터넷에서 한
국가수들의 공연을 요청하는 온라인
사인운동이 등장하고, 더구나 한국을
단체로 관광하는 계획들도 속속히 세
워지고 있다. 그중 케이팝이 가장 뜨
거운 곳은 동남아권이다. 아시아 시장
에 히트곡 50개 곡 중에 46개가 한국
케이팝이다. 아시아의 전 시장과 세
계를 석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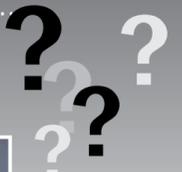
우리가 K-Pop을 젊은이들이 좋아
하는 세속적인 음악이고 경건하지 못
한 유행가로 일축할 것만은 아니다.
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
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한국
이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고난받던 나
라고, 가난한 나라이고, 핍박받던
나라이었지만, 고난을 경험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 흠
어진 한국인들이 세운 디아스포라교
회들이 아직도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복음의 불길을 붙이는 불쏘시
개로 쓰임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폭발적인 한류의 열풍으로 선교
사님들도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변
화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기도제목이 생긴다. 과연 케
이팝 열풍이나 한류열풍이나 스포츠
의 새로운 지평선을 통해서 복음전파
의 새로운 지평선이 확장시키는 계기
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한국
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새로운 지평
선의 여심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길들이
한민족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어떤 목사님의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며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알기 쉽게 깨어짐의 영성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성에서 이 집사

A: 성도님이 설교에서 들은 깨어짐의 영성은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 한사람의 교육을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는 흠을 만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흠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여기 물 좀 붓지"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흠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흠이라서 그냥 옆으로 물이 흘러나가고 맙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말하기를 "이 딱딱한 흠은 물을 받지 못하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 들더니 그 딱딱한 흠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흠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합니다. 젊은 수도사는 부서져서 부드러운 그 흠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흠을 응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써를 뿌

가루로 부서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아

리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집사님이 질문한 이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단단해서는 안되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깨뜨려주세요 깨뜨려 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꾸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질 때 진정한 영성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가루를 빵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밀가루가 거친 것에서 빵아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군도 깨어지고 빵아져 가루가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같은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많은 환난을 통해 깨어지고 압박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에 그는 인간적인 자아가 깨어지면서 진정한 영성을 가진 거룩한 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값비싼 인도산 나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것도 실화적이고 목 부분을 깨뜨릴 때 그 속의 향기로운 향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깨어짐의 영성과 같은 법칙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도 땅에 파묻혀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함께 밀알의 단단한 부분이 깨어질 때 드디어 생명의 씨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습니다.

24시간 영업

뉴욕코탕 스텝가게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24시간 오픈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대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황의영 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기독교 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LAY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n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소를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교 기관, 기독교언론 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 곳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힌드코(HINDKO)



파키스탄은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으로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땅이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1억4천5십만에 달하며, 편지비족, 파탄족, 신다족, 우르드족 등을 포함하여 90개 이상의 종족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이 땅에 살게 된 큰

유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끊임없이 외부인의 침략을 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비드족, 인도-아리안족, 훈족, 그리스인, 스키타인, 아랍인, 몽골인, 페르시아인, 아프가니스족 등과 같은 종족들이 파키스탄에 속한 종족들이다. 때로는 작은 종족집단들이 섞여 큰 종족집단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힌드코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힌드코족의 인구는 4백만 정도이며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힌드코족은 본래 파키스탄 북부의 북서지역에 거주한다. 이들은 인도-아리안계 언어로 구본

삶의 모습

파키스탄 전체 땅의 1/4만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만 농업이 국가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농부들이다. 안타깝게도 농부가 농업생산을 증가시키는데도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거의 없게 만드는 소작농 제도도 인해 농업생산량이 낮다. 소작농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토지개혁과 농진교세를 도입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관계용변과 비료사용을 통해 밀생산이 극적으로 증가

돼 지금까지 부족하게 됐으나, 아직 주식 농산물들은 이따금 부족할 때가 있다. 밀이 최대 작물이며 사탕수수도 많이 재배한다. 쌀과 면화는 최대 수출작물이다. 또한 농부들은 염소, 양, 소, 물소, 낙타 등과 같은 가금들을 키운다.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해 고기와 유류생산은 적은 편이다.

힌드코 사람들은 대체로 대가족 단위로 생활한다. 가족구조는 매우 가장중심적 남성 위주이다.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부족하며, 부유한 농부 외지주나 도시에서는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에만 있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한다. 외출할 시에는 베일로 가려야만 한다. 푸르다(FURDA)를 지는 집들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공간이 있다. 남성의 공간인 마르다나(MARDANA)는 보통 가옥의 전면에 위치하여 방문자들이 여성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공간인 자나나(ZANANA)에 틀어박혀 생활한다. 가난한 농부들의 경우 여성들이 농장 일을 도와야 할 때는 함께 밖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한다. 사회조직은 계층이나 카스트 계급보다는 혈족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베라다리(BERADARI) 남성을 통한 가계(혈통)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힌드코족은 일반적으로 씨족 내에서 결혼을 많이 하며 사촌간의 결혼을 선호한다. 혈통 안에서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씨족의 원로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로회는 혈통의 정치적 대표기구로도 기능을 수행한다.

신앙

파키스탄 인구가 97%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고백한다. 나머지 3%에 힌두교, 기독교, 시크교(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혼합종교, 불교가 포함된다. 파키스탄 헌법은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임

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힌드코족의 99%가 무슬림이며, 약 1%가 기독교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성인은 38%뿐이다. 헌법이 초등교육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받는 아동들은 절반 미만이다. 의료 시설, 의약품, 및 전문 의료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다. 깨끗한 물과 폐수 처리 및 배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8% 미만이다. 힌드코족의 영적 필요 또한 매우 많다. 현재 이 두 힌드코 종족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지만 힌드코 사람들 중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1% 미만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캘리포니아 주 동성애교육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학생들은 앞으로 역사 시간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사회과학 교과서와 수업에서 동성애자는 물론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재나 교실에서의 언급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인 사회과학 교과목에 포함시키기에 이를 배울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현재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민주당)의 서명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에서 법안은 49대 25로 통과됐다. 찬성표는 단 한 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의 성취들을 인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들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미국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세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같은 우려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에 따라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신념에 의해서 수업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서명을 얻을 경우 2013-2014학년도부터

발효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법안이 5년 전에도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대의 학교 교재 시장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 주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권력 공백기 틈탄 기독교 공격 증가

이집트에서 콕트(Copt)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 사건과 젊은 여성 기독교인들의 납치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 북 이집트의 아우라드 카라프(Awlad Khalaf) 마을에서는 수백 명의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야(Minya)에서는 2명의 젊은 콕트 기독교인 여성들이 납치를 당해 이슬람교로 개종을 강요받았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집트의 경찰과 군인은 무슬림들의 편을 들고 있으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인을 공격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집트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Mubarak) 전 대통령의 정권이 무너지고 권력의 공백기가 발생하자 젊은 기독교인 여성들의 납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집이나 거리에서 납치당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거나 무슬림 남성들과의 결혼을 강요받는다. 납치된 여성들이 다행히 경찰에 의해 구조를 받더라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콕트 기독교인들이 말했다.

콕트 기독교인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마크 에베이드(Mark Ebeid)는 이집트의 콕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태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성교회, 교인 수 감소에 "예배 시간 좀 줄이자"

예배 인원 수 감소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 성공회에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예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날 영국 성공회에서 주일 예배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0여분에 이른다. 그러나 조나단 글레드힐 리크필드 주교는 앞으로는 예배가 50분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런던 주교들의 모임에서 제안했다고 현지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간단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남은 일을 하거나, 수면 보충, 자인들과의 약속, 자녀 교육, 쇼핑, 기타 취미 활동 등에 주의를 보내기 원하고 있다. 평일 날 이어지는 바쁜 스케줄을 탓이다. 그러나 주일 날 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글레드힐 주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설교를 보다 짧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영국 성공회 교회들에서는 보통 설교가 40분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설교가 길어질수록 청중들의 집중력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글레드힐 주교는 또 예배 절차들을 간소화해야 한다고도 성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예를 들어 상당수 영국 성공회 교회들이 주일예배에 선찬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는 "선찬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이의는 없지만 이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매주 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너무 오래 기도하고, 너무 오래 찬양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수정교회 "술려 목사 제명은 사실 아니다"

미국 수정교회가 창립자인 로버트 H. 술려 목사(84)를 최근 교회 이사회에서 제명했다는 언론 보도들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회측은 성명에서 "단지 술려 목사의 (이사회 내)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라며 "최근 교회 이사회가 술



려 목사를 투표권이 있는 이사에서 투표권이 없는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투표 결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회측 성명은 "이같은 결정은 술려 목사가 자신이 매진하지 원하는 연설과 저술 활동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술려 목사의 아들이자 전 수정교회 담임인 로버트 A. 술려 목사는 그의 아버지가 이사회 확대를 제안했다가 이에 반대한 이사회에 의해 제명됐다고 앞서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영향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를 쫓아냈다"고 말하기도 한 그는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는 이번 결정에 어떤 이해관계가 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 로버트 H. 술려 목사는 언론과 일체의 인터뷰도 갖지 않고 있다. 그는 '능력의 시간' 방송에는 계속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최악의 범죄 도시, 신학생들이 희망 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인 사건 발생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멕시코의 씨우다드 후아레스가 이 지역 신학생들의 감옥선교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미국의 선교지 소식 전문 미디어 미션네트워크뉴스(MNN)가 보도했다.



씨우다드 후아레스는 멕시코 전체 살인 사건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도시로, 작년에는 약 3천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하루 8건 꼴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 도시의 마약 조직들과 관련돼 있으며, 이들이 살인 사건을 비롯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되면 향하는 곳이 이 도시의 감옥이다.

이 감옥을 씨우다드 후아레스에 세워진 한 신학교의 학생들이 바꾸어가고 있다. 국제 감옥선교단체 크로스로드 바이블 인스티튜트(CBI)의 파트너인 이 신학교는 감옥선교 활동을 돕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모든 학생들은 수강자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아무리 극심한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 핸드폰빌러기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만사해결!
 임대료 \$3.00 a day, 39¢ 공짜!
 ■ 가격은 인건비용의 50% 수준
 ■ 고급 핸드폰 제공
 ■ 장기 - 스페셜 할인
 ■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박재호 목사
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헌금에 대해 바로 알고 행하라(3)

십일조는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눅18:12). 예수님도 이 제도의 외식적인 면은 경계하셨으나 제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셨다(마23:23).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눅11:42). 십일조를 사취(詐取)했을 경우에는 벌을 받았다(레위27:31; 신26:13-15). 바리새인들은 채소의 십일조까지 바쳤으나 외식함으로써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마23:23).

첫 번째 십일조는 모든 소유의 십분의 일을 떼어 레위인들에게 줄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민18:21).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많이 해야 한다.
b. 두 번째 십일조와 용도
두 번째 십일조는 첫 번째 십일조를 떼고 남은 것(10분의 9)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십일조는 다른 용도로 바치는 제3의 십일조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레위 사람과 및 외국인이나 나누어 먹는 것이었다.

①이스라엘은 7년 주기로 1년은 땅을 쉬게 하였다(안식년 쉼). 즉 이스라엘의 땅은 계속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경작을 쉬었다. 그리고 경작하는 6년 동안의 제1년, 제2년, 제4년, 제5년 되는 해에는 연중에 3차 절기(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십일조를 이때의 경비로 쓰였다.

②이스라엘이 땅을 경작시키는 6년 동안의 제3년과 제6년에는 절기축제가 없었고 따라서 제3년, 제6년에는 축제 경비를 안쓰는 대신 그 해의 두 번째 십일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각성에 모아 전액을 빈궁한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했다(신14:28-29). 이것을 제3의 십일조라 불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번째 십일조와 동일한 것이며 다만 용도만 달랐을 뿐이다. 이때의 구제 대상은 주

번째 십일조는 사실상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바치는 구제헌금이었던 것이다(신14:28-29, 26:12-15).

(4) 십일조의 정신
십일조는 한 마디로 "하나님을 제 일로 한다"는 정신의 표현이다. 성경에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하라"(레위27:3)고 하였다.

a. 십일조는 인간의 모든 소득의 10분의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

b. 십일조의 정신은 소득의 10분의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10분의1이 '성물(聖物)'이 되는 바 이는 처음것을 바침으로 나머지도 거룩해진다는 뜻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항상 구별할 수 있는 의식(意識)을 가짐으로써 성결된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c. 소득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모든 소득과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함께 성별되는 대

3:9) 그리스도의 교회에 십일조를 바침이 마땅하다.

b. 십일조는 축복의 결과요 또한 축복의 원인이며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십일조는 성경의 법칙이다. 그 누구도 십일조를 거부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개신할 때 소돔왕의 영접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성찬막음, 창14:17-18), 십일조를 드렸다(창14:20). 아브라함이 성찬을 받고 십일조 드린 것처럼 성찬 먹는 신자는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한다(말3:10).

c. 십일조가 낮으면 그것은 곧 축복의 열매이므로(시127:1; 잠16:1)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러야 한다. 십일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써버리면 그것은 곧 축복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d. 데모스 테네스(Demos Theness)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하나님의 성물을 절취(竊取)한 것이다"라고 했다(말3:8).

(6)십일조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십일조를 드림만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풍성한 복이 임한다(말3:10).

(7)십일조 떼고 난 나머지 사용법

십일조를 떼어 바치고 난 다음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십일조를 바침은 수입의 10분의1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과 소유의 참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떼어 바치고 남은 것도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니 나머지 십일조를 떼어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전10:31). **〈끝〉**

제1십일조는 레위에게 제2는 절기행사에 제3은 구제로 사용 나머지 9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열한 지파를 대신하여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에 전념해야했기 때문이다(민8:19). 레위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십일조를 모아 그 가운데서 십일조를 다시 떼어 제사장에게 바친다(신14:26). 그러므로 첫 번째 십일조는 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원목이 제일 많이 받고 구제나 사회봉사를

다시 10분의 1을 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두 번째 십일조라 불렀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친 십일조는 전체 소득의 19%였던 것이다. 두 번째 십일조는 절기 행사 사용으로 1년에 3차(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족들의 체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신14:22-26).

로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였으며 이들은 당시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다.
십일조를 사용한 후에는 백성들은 그 십일조를 정확하게 구제를 위해 썼음을, 즉 자신을 위해 쓰거나 용도 외에 쓰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했다(신26:12-15).
이상과 같이 상고해 볼 때 제3년(제3년과 제6년)마다 바치는 두

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d. 썩어질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을 쌓는다는 뜻이 있다(마6:19-20).
(5) 십일조의 당위성
a. 십일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와 함께 복을 받는 성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목사: 송규식 www.gracewave.org Tel. (714)699-0210, Fax. (714)699-0210(Cell)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Tel. (310)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or.org</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Tel. (323)939-7323,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Tel. (626)793-0880, (F) (626)793-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문영 Tel. (562)861-1004, Fax. (562)923-8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신부님이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과 상담·확속 오전 10시부터 -</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Tel. (626)793-0880, (F)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만남의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www.churchmannan.org Tel. (818)882-9191, Fax. (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Tel. (818)363-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병 www.milo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 Fax. (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aJolla St., La Habra CA 90631</p>	<p>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CH), 사택. (818)983-9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새창조교회 담임목사: 정병재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p>	<p>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병박 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153@yahoo.com</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Tel. (818)363-2450-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p>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n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최병수 www.inlandchurch.org Tel. (909)822-2324, Fax. (909)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이훈준 www.gcc.org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cornerstonech.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2. 빙하시대 이후(5) : 종교의 시작과 복음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용도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탑은 남아있지 않다. 기록에만 있고 존재하지 않는 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떤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이 지구라트(Ziggurat)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와 비슷한 구조들이 마야 문명지(AD 200-1000)와 인도네시아(AD 800년경) 불탑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구라트란 '높은 곳'이란 뜻으로 보통 3-7층 구조의 피라미드와 닮은 거대한 건축물이다. 그 기반은 60x45m 혹은 30x30m이고, 나선형 탑 모양의 건축물인데 피라미드와 달리 꼭대기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탑 꼭대기는 신전이나 신을 모시는 집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바벨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용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종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상숭배와 종교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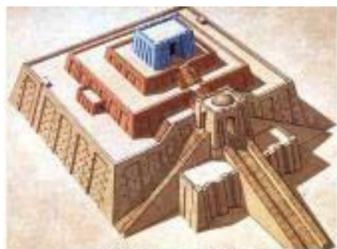
성경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은 노아홍수 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이라크의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유역 시냇 지방으로 이주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또 다시 반역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들의 죄는 세상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창1:28; 9:1)과 자기 이름을 내고 창조주이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교만함이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 생활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 그리고 연합과 힘의 상징으로, 도시 건설과 함께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물론 그 도시와 탑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이 바벨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는 각 가족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시냇 지역을 떠나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을 신속하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빙하시대가 사람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켜 창조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전달될 수 없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을 공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 지식도 함께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범죄 사건으로 하나님과 창조와 인류의 역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잊혀지게 되었다.

바벨 지역에서 흩어진 인류가 창조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안 전함을 보충해 줄 창조자 이외의 대체품을 찾아

모든 물질계는 내리막 경향...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음 뿐 물리적/인간관계 타락...하나님 도움 없이 창조자 찾지 못해



지구라트 = 바벨탑?
모든 종교의 시작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야만 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롬3:11).

역사를 통하여 전 인류가 창조와 창조자를 알았던 시대가 두 번 있었는데 아담과 아담의 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살았을 인류 초기와 홍수 후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살았을 때뿐이다. 인류는 능력의 공급자로서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롬1:18-32).

성경뿐 아니라 과학 법칙에 비추어보면 사람과 피조 세계는 능력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모든 물질계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향(사실)을 과학자들은 열역학 제 2

법칙이라 부르는데 이 물질 법칙에 예외를 보이는 피조물은 없다. 이 법칙을 극복하려면 끊임 없는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한데 에너지의 창조자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음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는 계명이 첫 번째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바벨에서 인류가 흩어지면서 창조와 창조자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제 각각 우상들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이 홍수(BC 2350년경) 후 약 100-200년 사이 이므로, 모든 문명이 BC 2350년을 넘을 수 없었이, 모든 종교의 시작과 종교 행위도 4300년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인류 자체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통계 분석 자료도 이 성경 역사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Nature 2004년 9월 30일).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용어로 '고등종교'라는 것들도, '원시종교'라 불리는 모든 종교 행위들도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이런 종교와 행위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 기대는 허망한 것이다. 구원자는 창조자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성경의 '오직 예수'의 주장은 사실이고 논리적이다.

바벨탑 사건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필요할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수많은 교인들도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때, 필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장래에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준다는 확실하지 않은 보람(?)과 같은 것이었다. 또, '왜 성경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까?' '단순히 죄가 없는 분이므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마음에 묻어둘 수 밖에 없었다.

복음의 필요는 사실 문제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과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실이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와 범죄로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실에 있다. 이 결과로 창조자와의 관계가 깨졌고 그분의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세상은 계속 타락하고 있다.

세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노아홍수 심판 때 지구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어 물리적인 타락이 더욱 가속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는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급격한 타락을 맞보았다. 언어가 혼잡해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고 창조와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라도 급격한 상실이 있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창조자를 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바로 좋은 소식(Good News)이 필요한 근원적인 이유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자는 단순히 죄가 없는 어떤 분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분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증장로교회)

아무리 가려도 부끄러움이 점점 커져만 가는 무화과나무 잎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창3:7).

선악과를 한 입 무는 순간 부끄러움, 죄의식, 벌받을 것에 대한 무서움이 하와에게 물려줍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내기 가진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 혼자 벌 받기가 무서워서 남을 끌어들이는 것은 남을 내 배때미로 삼는 마귀의 악한 마음입니다. 사고치고 겁이 덜컥 나니 그제서야 생각이 난 남편에게 달려가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장하며 자신이 유혹받은 그대로 "자기가~~ 먹어 봐. 맛이 죽인다니까~~" 선악과를 내줍니다. 선악과를 아내에게서 받아들며 하와의 탐심에 마음을 합하며 생각합니다. "뭘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더니? 하와가 안 죽었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궁금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 겉으로 보이는 하와의 살아있는 육체의 모습만 보고 담대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담은 덩석 선악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보이고 그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려서 무화과 잎새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어감은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긍정적인 것 같은데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움이 느껴져 자신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해서는 안되는 유혹에 발을 디뎠을 때 "아빨싸" 눈이 캄캄해져서 수치를 우선 감추고 숨는 모습입니다. 마약을 파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중독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실상에 눈이 뜨면 뛰쳐나가 살 길을 찾기 보다는 대부분 더 심한 중독으로 빠져들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중독의 양상은 유혹 반응의 과정이나 결과도 다 똑같은 마귀의 인간 파괴 작전에 걸려들 은 것입니다. 마약이 잠시 주는 맛에 감각이 눈이 떠 알려주며 끌려들어가는 그 맥의 죄의 잠시의 감칠맛에 코가 끼여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는 분명히 독약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인간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약을 마셨는데 하나님 탓이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경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는 '네가 생명을 택 하길 바란다'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의 자리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자답게 자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귀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격으로 명실공히 갖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배려입니다.

문제가 터지기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였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생사를 넘나들며 생명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이 크게 다가오고, 물질에 문제가 터지면 의식주에 어려움 없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등등 당연하다 여기던 것에 이상이 생겨야 평상시에 아무런 감각 없이 당연시하던 모든 일들이 복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니 감사가 무감각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이 없던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였는지? 아무리 가리고 숨고 숨겨도 올라오는 수치심에 온갖 두려움의 소리가 커지고 이런 마음으로 떨어지도록 유혹한 아내 원망에 심지어 하나님원망에 삼키워진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의미하신 죽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잎새로 옷을 해입고도 모자라 하나님의 빛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안절부절못하는 돌을 보며 하나님은 물론 저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아담아 아담아"하고 안타깝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완전해진 연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옴이 우리가 살아남 은혜의 살 길입니다.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용철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 회: 오후 7:30 새벽 기도 회: 주일 6:00 (월-토)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삼 일 기도 회: 오후 8:00(수) 새벽 기도 회: 주일 6:0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오후 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주일 찬양예배: 오후 8:00	벤 엘 교회 담임목사 :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국):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국):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국):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국):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 한국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00 수 요 기도 회: 오전 8:00 수 요 예배: 오후 8:00 대 회 찬 념 부: 오후 1:30 찬양사별찬양: 오후 2:3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전 6:00(월-토)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 요 예배: 오후 7:30 금 요 찬 양: 오후 8:00 새 벽 예배: 오전 6:00 (월-토)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엘파스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사별찬양: 오후 2:3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환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6: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 예 수 교 회 담임목사 : 배현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목 요 찬 양: 저녁 8:00	큰루리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배: 오후 7:30 수 요 찬 양: 오후 8:00 새 벽 예배: 오전 5:30 매일 저녁 7시(금, 토, 주일)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www.hawchurch.org 1부 예배: 오전 9:30 주 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방기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템파조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본문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 요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 회: 오전 5:30 (월-토)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창현 주일 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인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전 9:00	

미기총 대표회장에 송정명 목사 선출

13차 총회, '미주한인교회 일치와 영성회복' 주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이하 미기총)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미주한인교회 일치와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로 제13차 총회를 개최하고 송정명 목사를 대표회장에 선출했다.

송정명 회장은 "제13차 미기총 대표회장에 선임해준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이 어려운 때에 있는 만큼 4천여 한인교회가 힘을 합쳐 목소리 내어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한 모퉁이를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미기총은 1997년 5월 시카고에서 미주 교계 일치와 연합, 미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기치에 두고 설립됐고, 2002년 5차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올해 총회 시한기총에서 미기총 기(旗)를 증정한 바 있다. 미기총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며(www.ikcca.org), 국제기독교



미기총 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선교대학(IMIC)을 통해 선교사 및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며, 파이오니어(Pioneer) 잡지 발간을 하고 있는 미주 400여 한인교회와 50여개의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총회 첫날 대표회장 당선인 목사(동부)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황의준 목사(동부, 정관계정위원장)의 기도, 준비위원장 박용덕 목사(서부)의 성경봉독, 노형진 선교사의 특송

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희민 목사(서부, 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섬김의 리더십'(막10:44-45)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회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임형태 목사(NCKPC 부총회장)가 '미주교계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유영일 목사(아리조나)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이종명 목사(뉴욕 교협 부회장)가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하여',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 총무)가 '미주복음화와 북한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10대 대표회장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총회 기간 동안 저녁과 새벽에는 오병렬 목사(안양 성산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미주복음화 전도대회가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다음은 13차 미기총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이다.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서부: 미주평안교회) △삼일회장 전영현 목사(동부: 서광장로교회) △수석공동회장 황의준 목사(동부: 트랜트장로교회) △공동회장 민중기 목사(서부: 충현선교회), 임형태 목사(북부: 플로라도스프링스 한인연합장로교회), 김동욱 목사(남부: 헨더슨선교회) △사무총장 황경일 목사(동부: 뉴욕계명장로교회) △총무 박용덕 목사(서부: 남가주빛내리교회) △서기 유영일 목사(서부: 주사랑성결교회) △부서기 윤사무열 목사(동부: 감람산장로교회) △회계 김원락 목사(서부: 벨리제일장로교회 △부회계 최문선 목사(중부: 군포성장교회)가 선출됐다. (박준호 기자)

"신중하게, 더 넓게" ...호산나대회

뉴저지교협, 강사 이태희 목사 '성령 받기' 강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병우 목사)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초대교회(담임이 "신중하게, 더 넓게"라는 주제로 제 23회 호산나대회를 열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이자 성복교회 담임인 강사 이태희 목사는 첫날 사도행전 3장 1-10절을 본문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 받아야함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믿는 자이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런 표적이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사흘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행3:1-10), "잠 예배"(요4:23-24), "사명"(욥1:1-2)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모든 순서는 화원교회 담임목사들이 나누어 담당했다. 첫날은 회장 유병우 목사 사회, 김두와 목사(지구촌교회) 기도, 이준기 목사(하나교회) 성경봉독, 이종만 장로(회계) 봉헌기도, 장문성 목사(총무) 광고, 김경문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은 장문성 목사 사회, 은혜 목사(서기) 기도, 김재성 목사(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성경봉독, 이



강사 이태희 목사(좌), 유병우 뉴저지교협회장

덕선 장로(부회장) 봉헌기도와 광고, 정창수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은 사회 유재도 목사, 기도 이성일 목사, 성경봉독 김영덕 목사, 봉헌기도 이한우 장로, 광고 장문성 목사, 축도 정성만 목사의 순으로 진행했다.

또 찬양은 다리를놓는사람들, 뉴저지장로성가단, 뉴저지권사성가단, 뉴저지시모성가단 등 연합성가대, 엘리트크리스천밴드 등이 참가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호산나대회에 앞서 8일 오전 교역자들을 위해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신천지 및 이슬람" 이단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신천지에서 교육장을 지냈던 신현욱 전도사로 신 전도사는 현재 한국 예장합동 총회신학원 재학 중이며 내년 봄 졸업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2011년 만델라 세계의 날 청소년/대학생 리더십 캠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구인 GCS International과 평화나눔공동체가 공동주최하고 CTS기독교TV 워싱턴지사가 주최하는 유엔이 정한 '2011년 벨스 만델라 세계의 날' 기념 청소년/대학생 리더십 캠프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워싱턴 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유엔 만델라 세계의 날은 200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결의했으며, 매년 7월 18일을 남아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인종차별철폐운동과 세계평화운동의 공로를 기리는 날로 선포한다. 이날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델라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및 사례발표, 만델라가 행한 인종화합, 빈민구제, 환경운동 프로젝트 실천하기, 스미스소니언 아프리카박물관 견학, 아프리카문화 및 종교이해, 만델라 캠프 영문뉴스레터 만들기, 유튜브 동영상 만들기, 오바마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체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20시간의 지역사회봉사 크레딧과 함께 유엔국제기구들이 수여하는 유엔NGO리더십 수료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영문뉴스레터,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평화나눔공동체는 8월 6-7일에는 '유엔 세계원주민보호의 날' 캠프를, 8월 13-14일에는 '유엔 세계청소년의 날' 캠프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연락처: (571)259-4937(최상진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대학교 총장취임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에서 류종길총장이 소감을전하고 있다

"토목총장으로 학교발전예 최선 다하겠다"

미주성결대학교 류종길 총장 취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

미주성결대학교는 류종길 박사 총장 취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을 지난 5일 저녁 6시 한인타운 내 워셔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삼복 목사(미주성결대학교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취임감사예배는 정후윤 목사(남가주성결교회역자회장)의 기도, 김가정 목사(한국후원이사회 총무)가 축가,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가 "좋은 지도자"(느1:1-5, 1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유석성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총장)와 박성삼 목사(서울신대 58동기회 대표)가 축사를 조준남 박사(서울신대 명예학장)가 격려사를 했으며 조남국 목사(서울신대 총동문

회장)가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류종길 총장은 "미국대학에서 총장으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단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두 전임총장이 이룩해 놓은 터 위에 토목공사를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교 교무처장인 윤석길 박사의 사회로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비전선포식에는 류종길 총장의 비전발표, 캘리포니아 매스터교회의 축가, 이정근 대학원장의 감사와 격려, 이영석 목사(LA동지회회장)의 합심기도 인도 등으로 이어졌고 박승로 목사(미주성결교회 총무)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목회서신

"예수가 없는 교회"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기독교 미라클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는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는 드루 신학대의 석좌교수로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윗 교수는 자녀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장애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DDD: Jesus Deficit Disorder)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윗 박사는 교회가 이처럼 변질되고 있는 단적인 예를 언급합니다. 교회에 가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리더십 또는 목회나 선교전략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하는 일도 새삼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성경이나 예수 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없는 교회가 과연 이 시대를 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과 핵심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의 머

리도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어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저런 가치관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들마다 이러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All we need is nothing but Jesus.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가치관이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통해서 느끼는 논리적인 삶 보다는 가슴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 모양만 있는 믿음의 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생명이신 예수가 빠져있으면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포장한 예수가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분의 자리에 모셔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머리됨(Headship)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오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464-2295,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s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오예배: 오후 8:30 영 아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961-2810, Fax: (718)961-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 아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 오 예배: 오후 8:30 금요(안식)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voc.org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오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u.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 Harding Espa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오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요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혼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6부 BMMEM: 오후 3:00 7부 노인예배: 저녁 7:30 수오 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8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매월 1주, 3주) 8:00 Tel: (201)342-9194, Cell: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오찬양예배: 오후 8:30 토 오 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9:45 수오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 Fax: (516)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성예배) 맨하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금요 예배: 저녁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만화날) 6:30 Tel: (718)321-7800, Fax: (718)321-9394 150-30 31Ave., Flushing, NY 11354	어린양 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5:30 수 오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 Tel: (718)899-8309, Fax: (718)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 아 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수 오 예배: 오후 8:20 금요예배: 오후 8:20 Tel: (718)310-7061, 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전 10: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월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cn.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시(1부) 주일예배: 오전 11시(2부)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30분 NCF영어: 오후 5시 30분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nyc.org	한미유심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오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 277-1103, Cell: (917)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8-4400 Fax: (718)898-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수 오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 아 예배: 오후 7:00 수 오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82-1165 RUA SANTA RITA, 20-PAR-3A0 PAUL-CEP-BRASIL	아르헨티나 새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7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00 수 오 기도회: 저녁 9:00 718성가대: 오전 7:40(매월) 수.오.중.고등부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수료생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kim@hot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기사판



“말씀 찬양 파노라마” 집회

쌍둥이 형제 김진산 김진석 목사가 인도하는 “말씀 찬양 파노라마” 집회가 지난 10일부터 20일(수)까지 뉴욕에서 열리고 있다. 대구 예원교회와 씬이있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은 1980년 찬양사역을 한 복음성가 1세대 찬양사역자들이다. 일정은 17일(주) 오전 11시 베데스다교회, 뉴욕어린양교회 20일(수) 오후 8시30분 순복음 안디옥교회, 새생명장로교회.

▲문의: (718)690-6068

동사목사 청빙

미국장로교(PCUSA) 교단인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가 담임목사 은퇴를 앞두고 동사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M.Div학위 이상)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8년 이상(부목사 포함), 영어설교가 가능하며 미국 체류에 걸려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한영, 사진첨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 및 가족소개(사진), 목회 철학 및 비전서, 최근 설교 동영상 2회분(CD, Tape, DVD) 및 교회주보 2매, 목사추천서 2부 이상이 필요하다. 제출마감은 8월 31일. 이메일 nykpcq@gmail.com

▲문의: (718)229-9191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17일(주)부터 20일(수)까지 뉴저지 허드슨벨리 리조트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승천 목사(프랑스 포노프장로교회 담임), 한편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29일(월)부터 9월 1일(목)까지, 청년부는 8월 17일(수)부터 20일(토)까지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담임목사 청빙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뉴저지 팰리세이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상 목회경력(부목사 포함)이 있어야 하며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 목회비전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설교동영상 2회분, 추천서 등을 이메일(application@palisadeschurch.org)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7월 21일.

▲문의: (201)358-8383

장학생 모집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대학(원)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뛰어나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신앙간증서, 성적증명서 등이다. 장학금은 10여 명에게 각 1천 달러씩 수여한다. 신청마감은 7월 24일, 수여식은 8월 14일 갖는다.

▲문의: (718)279-2757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 녹음축제

시 수필 낭송·디아스포라문학 강연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회장 김해중 목사) 녹음축제가 지난 10일 저녁 뉴저지연합교회(담임 최성남 목사)에서 열렸다.

1부 말씀의 시간과 2부 축제로 나눠 1부는 이철수 부회장의 사회로 최성남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김해중 목사가 “말씀이 입은 옷”(요 1:14)이라는 제목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람비의 옷을 입고 사역하셨는데 이 성육신을 건너가는 것에 비취 첫째 언어, 둘째 전달/접촉, 셋째 변화”라며 “문학을 통해 이 건너감을 이루자”고 전했다.

2부는 최원정 전도사의 사회로 시 낭송(백명훈, 고경자), 수필낭송(이철수)이 있었으며 특별음악순서로 미주퓨전국악관현단의 데뷔 공연이 있었다.

이어 임혜기 작가가 “디아스포라 문학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특강 시간을 가졌다. 한국 펜클럽 회원이며 미주동부한국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임 작가는 74년 도미 후 뉴욕한국일보 기자로도 활동했으며 단편 소설, 번역소설, 에세이 등을 출간했으며 1990년부터 2010년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뉴욕목사회, 김인중 목사초청 목회성장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가 주최한 김인중 목사 초청 목회성장 세미나가 지난 1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김인중 목사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는 김영환 총무 사화로 기도 황영진 선교분과위원장, 성경봉독 송일권 부서기, 환영식 김용의 회장, 광고 장경혜 서기, 축도 김종덕 중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의 회장은 강사를 소개하며 “세미나는 좋은 강사 선정이 중요한



뉴욕목사회 초청 김인중 목사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데 김인중 목사는 안산 동산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킨 목회자로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뉴욕이 복음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1차 기도회

실행위,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다루기로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임시총회 개최 취소를 임원회만의 결정이 아닌 실행위에서 결정했다. 교협은 지난 6일 오전 플러싱 산수갑산에서 열린 할렐루야대회 1차 기도회 및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실행위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9월 9일부터 3일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는 할렐루야대회는 연합부흥회 성격으로 찬양대는 연합찬양대로 한다. 단순한 복음을 위한 예배로 진행돼 다른 행사 순서는 배제된다. △대회를 통한 수익금은 단기선교 후원, 장학사업, 지도자컨퍼런스, 다민족 전도, 원로목사회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날 임시 실행위에서 대두된 질

문에 대해 회장 김원기 목사는 “회칙개정은 10-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지난 실행위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할렐루야대회에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할렐루야대회)를 치중해서 드리고 총회라는 정치적인 문제는 연기해야 했다. 그런데 정기총회가 임박했는데 임시총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아 정기총회에 다루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기총회에서 회순에 대한 문제는 총회석상에서 결정되는 일이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 집행부로서의 예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칙개정을 먼저 다루고 선거를 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까지 월간조선에 “임혜기의 뉴욕 이야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임 작가는 “디아스포라문학은 이민문학의 다른 표현”이며 “이민자의 정체성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디아스포라문학의 발전적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회장인 김상모 목사가 동우회의 역사와 성격, 해외기독교문학

집 출판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모 목사는 “동우회가 지난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했으나 회원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회원입회원서를 다시 받고 연회비 정회원 50달러(70세 이상 20달러), 유지회원 200달러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찬송으로 찬송가 502장과 525장을 김해중 감독 작사에 맞춰 부르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주신장로교회 부흥성회에서 김인중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뉴욕주신장로교회 부흥성회, 강사 김인중 목사

뉴욕주신장로교회(담임 김용의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김인중 목사(안산 동산교회 담임) 초청 부흥성회를 열었다.

김인중 목사는 첫날 “믿음의 능력”(롬4:18-24), 둘째 날 “성령의 능력”(고전2:4-5), 셋째 날 대예배 “역전의 능력”(대상4:9-10), 오후 “믿음의 능력”(시122:1-5)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김 목사는 첫날 설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며, “첫째 믿음이 약해지면 안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는다. 둘째,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셋째 견고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다. 부활과 창조 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역설했다.

첫날은 김용의 목사 인도로 기도 정순원 목사회중경회장, 성경봉독 임재홍 목사, 헌금특송 김인식 목사 부부, 축도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진

행했다. 둘째 날은 김영환 목사 사화로 기도예배, 목사회수석협동총무, 성경봉독 장경혜 목사, 헌금기도 안승백 목사, 축도 김종덕 목사, 셋째 날 저녁은 박진하 목사 사화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성경봉독 이창남 목사, 봉헌기도 김연규 목사, 축도 최창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 친선축구대회 개막

뉴욕목회사축구단(단장 김홍석 목사)이 주최하는 미동부 친선축구대회가 지난 10일 시작됐다. 타 인종들과 함께 경기를 갖는 이 대회는 8월 28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베이스사이드 레이몬드 오크너 축구장에서 열린다. 결승전은 오후 6시.

한국 교회팀은 뉴욕성결교회, 뉴욕초대교회, 등대교회, 메신저교회, 믿음으로사는교회, 열방침례교회, 프라미스교회, 퀸즈중앙장로교회, 아프가니스탄 팀 등 9개 팀이 토너먼트로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는 뉴욕한국일보가 특별후원하며 미주기독교방송(KCB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 및 다민족 선교를 위한 것으로 올해가 네 번째이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니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교회 되라!”

OC전도연 장학일 목사초청 한여름 성령축제

오렌지카운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는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 초청 한여름 성령축제를 11일부터 17일까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다.



한여름성령축제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학일 목사

첫날 저녁 7시30분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집회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상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 본 교회 영광찬양대의 특별찬양, 순영혜 권사의 말씀봉독으로 이어졌다. 이어 장학일 목사가 ‘신령한 복’(엡1:3-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교세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과 똑같

이 살기 때문이며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결탁하고 아부해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왕따를 당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상황이 올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가지는 것이며 그럴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여름 성령축제는 둘째 날 저녁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영적인 자리’(행9:10-15),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인랜드교회에서 ‘신앙과 복’(롬4:17-18과 ‘승리의 삶’(겔1:4-15)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생명의 법’(롬8:1-4), ‘회복’(말4:1-6), ‘아름다운 신앙’(롬12:1-3)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를 인도했다.

장학일 목사는 서울의 신당동에서 예수마을교회를 개척 시무하고 있으며 ‘마음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음이 되자’는 운동을 펼친 결과 신당동의 청소년 범죄율 0%가 되는데 일조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박준호 기자)



제1회 뮤지션페스티벌이 월드비전대학에서 열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1회 뮤지션 페스티벌

기독교 문화 키우기...크리스천들 공감하는 무대 마련

남가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모여 한마당을 펼친 제1회 뮤지션 페스티벌이 9일 저녁 7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박선영 자매, 스티비원디와 무대를 같이했던 이승희 자매, 허지에 자매, 박갑수 목사, 정종원 목사(꿈이있는 자유), 박희진 교수(Musicians Inst.) 등이 나서 김진수(기타) 이병결(베이스) 김영민(드럼) 김호인(건반) 장하얀(건반) 등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밴드의 연

주에 맞춰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으며 재즈, 블루스, 팝, 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불러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뮤지션 페스티벌을 기획한 월드미션대학교의 CCM과 김진수 교수는 “한인사회에 좋은 음악회가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은 전무한 실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좋은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유능한 목사 아닌 진실한 목사 되겠다”

빛과소금교회 이항영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에서 취임패를 받은 이항영목사

회 서기가 축사를 했다. 이어 본 교회 구본근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예물 및 화환 증정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항영 목사가 답사를 했다.

예배에 이어 시작된 한마음 축제는 본 교회 남성중장단과 여성중장단이 찬양을 했으며 이원욱 집사가 이항영 목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교회 KM청년부에서 워싱턴을 선보였으며 담임목사와 부목사 내외가 나서 특송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항영 목사는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석사를 취득했다. 1998년 예장통합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호주 골드코스트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를 6년간 역임했다.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과정중에 있다.

(박준호 기자)

빛과소금교회는 이항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10일 오후3시에 개최했다. 이항영 목사는 “유능한 목사가 아닌 진실한 목사가 되어 지길 원한다. 빛과소금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심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 담임, 남가주교회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최경철 목사(본 교회 부목사)의 기도,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충한 목사(넘치는교회 담임, 남가주교회회장이)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후11:7-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취임패 증정의 시간을 가졌으며, 민중기 목사가 취임하는 목사에게 그리고 권영국 목사(대흥장로교회 담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담임, 남가주노

“하나님 평가에 민감...사명 이뤄가자”

세리토스장로교회 3차 한여름밤의 말씀축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3차 한여름밤의 말씀축제를 8일 저녁 7시30분 개최했다. 첫날 집회에서 감사로 나선 김지성 목사(글로발선교회 담임)는 ‘무슨 평가를 받을 것인가?’(삿10:3-13: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사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자들이다. 그러나 본문의 사사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잘 키워낸 거 외에 한일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

며 “사람들은 누구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 최상으로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의 기준은 열매이며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며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말씀축제는 7월 말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김지성목사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본 교회 분당에서 개최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MOM선교회 남가주지부 ‘먹거리’ 세미나

MOM선교회 남가주지부(디렉터 안기주)는 이달 하순 MOM 이사이자 한국 식약청 연구위원인 한국의 이계호 교수(충남대학교 화학과)를 초청, ‘태초의 먹거리와 현대의 먹거리’를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23일(토) 오전 9시 남가주비전교회(1017 N. Heliotrope Dr., LA)와 24일(주) 오후 2시 알바인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에서 열리며 건강과 웰빙, 기독교적인 먹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818)522-3343

남가주사랑의교회 극빈아동 위한 무료 섬머캠프

남가주사랑의교회가 극빈가정 아동을 위한 ‘무료 섬머캠프’를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개최한다. 교회가 자리 잡은 매그놀리아 교육구의 5-6학년생 45명을 초청해 열리는 이 행사는 본 교회 홀리웨이브(영어 회중)의 이웃치기 미니스트리가 교육선교관(김영드림 센터)에서 주관한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아침과 점심 식사와 더불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등을 배울 기회를 제공 받고 박물관, 놀이공원 등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교회 측은 학생들이 직접 동력 보트를 제작해 보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714)772-7777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2011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쉐퍼드대학교(총장 이성연 박사) 신학대학은 2011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프로그램은 B.A.B.S., M.Div., D.Min. 이다. 쉐퍼드대학교신학대학은 지난 2월 ATS 정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한바 있다.

▶ 문의: (213)481-1313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

목사장로 부부찬양단(단장 김영대 목사)은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제1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를 오는 17일(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창제에는 감사한인교회(지휘 최은용), 남가주경신교당(강호원), 사우스베이한인교회(김승업), 가정장로교회(김정화), 미주기독교목우회 중장단(양승걸), 나선연약교회(이신희), LA사랑의부부합창단(이영재), 라팔마연합감리교회(박성숙), 오렌지힐교회(이중현 집사),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전중재) 등이 출연한다.

▲문의: (213)703-5726, (714)308-7308

오레곤 기독교실업인회 조찬기도회

오레곤 기독교 실업인회(CBMC 지회장: 이국지)는 조찬 기도회를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CBMC 회관(관장 이상택 4290 SW Cedar Hills Blvd No “B” Beaverton OR)에서 갖는다.

▶ 문의: (503)860-3333



남가주목사회 임원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옥스나드 식당에서 7월 임원회를 개최했다. 36명이 참석한 이날 임원회는 정요한 목사(총무)의 사회와 박효우 목사(회장)의 설교와 박만순 목사(부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이날 임원회에서 설교집을 출간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2011가을학기 신(편)입생모집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우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브에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주체이자 20여개의 성경적 제자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외성, 제자훈련을 주제로 전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 스피커로서 그의 설교가 TV를 통하여 방영되었으며, 그의 책 '제자일어나' 출판 이후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약장으로 제작되면서 영성, 교외성, 제자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앨스 크레프트 박사
영적전쟁과 내적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스위스, 독일, 태국, 대만 등 여러 세계 각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의 책을 한국어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있다

에드 실보스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외장이며 세계 최고의 선교 전략가이다. 또한 우리시대의 위대한 전도사이자 성경교사로도 기독교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기도전도를 통해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키며, 일터를 변화시키며 이영간의 화해를 일으키는 사도적 사역자로서, 피터와 그녀의 저서에서 잘 소개되어 있는 바 그의 후속세대인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레지스탕스인사회의 도시 변화로 전세계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베스트셀러인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탄의 기쁨부음' 등의 책을 저술했다. "기도전도"를 통한 그의 기도전도 전략은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많은 도시의 복음화를 이룩하고,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역풍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정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협회(CHEA)와 미 문교성(USDE)으로부터 공인 승인된 미 연방 학력인증 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이로써, 아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탈벗신학교,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우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쉐퍼드 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영성, 성경과 신앙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For the Lord, To the World"의 기지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로 영어와 학위프로그램 이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 위	프로그램	학 점
학 사	B.A.B.S.	128
석 사	M.Div	96
박 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쉐퍼드대학교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한기총 안정속 개혁선택...길 대표회장 인준 7일 한기총 특별총회, 찬성 200표, 반대 67표로

한국교회가 안정 속 개혁을 선택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길자연 목사를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했다. 이로써 3개월간 지속된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사실상 해제됐고 조직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267명의 총대들이 6시간 넘게 토론 주요 안건은 '대표회장 당선자 인준'과 '정관·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대표회장 선거 관련 소송 취하 권고안'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필수조건인 대표회장 당선자 인준 건이었다. 총대들은 찬성 200표, 반대 67표로 길 목사 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로 변경됐다. 대표회장 후보는 교단 크기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순번제로 배출하며 총대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으로 결정됐으며, 선관위 조직개편, 불발선거 제재안도 함께 통과됐다. 새 선거제인 대표회장 당선자 인준 건이었다. 당면적 실행위원회와 사무총장제는 유지됐다.

논리는 그간에 쌓아올린 공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과 회사,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무작정 해체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남은 임기가 짧지만 여러 의견을 사려 깊게 경청하며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부모세대 함께 "연합의 정신 잇자"

'장로교의 날'...2012년 한국장로교 총회 100주년 준비

한국 장로교가 다음 세대의 열정과 변화 욕구, 역동성을 교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으려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젊은이들과 함께 갈거리 찢겨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연합과 일치의 새장을 만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의 교단간, 세대간 소통과 연합의 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1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중심이 됐다. 젊은이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합창단과 백석예술대학 80인조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교회음악의 웅장함을 느끼고 CCM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설교자로 나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세상을 향해 보낸 받은 소명자가 곧 젊은이들"이라며 "청년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의 베드로, 바울 같은 전투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로 진행되는 미래지향적인 대회"라고 밝혔다. 양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길 청년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배하고,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장로교단들의 의지를 공유하게 된 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동함과 소통을 시대정신으로 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용기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성찬과 말씀 중심의 장로교 전통 예배로 진행된 3부에서는 장종현(백석학원 설립자) 목사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원리가 한국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키워드"라고 설교했다. 장 목사는 "한국 장로교회가 오직 성경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생명력을 회복해 민족과 인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관상기도 확산을 막아라"

개혁주의신학대회에서 신학자들 강경한 입장 전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삼봉 목사)이 11일 대전 만년동 새로남교회에서 주최한 '2011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관상기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총신대 김남진 교수는 "관상기도는 개인의 내면 성찰을 통해 평화를 얻고 자아를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그 안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회개와 회심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관상기도의 사상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족관계 있다'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음적 기도'의 회복을 관상기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복음적 기도는 하나님과 합일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을 구본 짓고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이미지와 개인적 경험에 끌리게 돼 있다"며 "철저한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해 복음적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 교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억제돼야 한다"며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성령,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는 손기철 장로의 집회에 신중할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신비주의 영성 집회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 요소들과 과장된 부분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과 영적 체험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의 후임으로 호주 시드니 새순장로교회 이규현 목사 최종 확정했다. 수영로교회는 10일 3,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고, 이 목사 후임 건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교인의 99.2%가 이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하는 데 찬성했다. 후임에 확정된 이 목사는 지난 80년대 중반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고 이후 호주로 유학, 1993년 새순장로교회를 개척해 성도수 3천여 명의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수영로교회 99.2% 찬성 이규현 목사 후임확정

부산 수영로교회가 정필도 목사



평창, 5명 중 1명 기독교인 성지화 101년 전 복음화 씨앗...미래도 '맑음'

3번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은 기독교 역사가 깊은 곳이다. 현재 68개의 교회가 있고, 이들 교회는 2003년 이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해마다 기도해왔다. 평창의 기독교 역사는 10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강원도 원주의 순회전도사였던 이동기 전도사가 평창교회(현 평창제일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산이 많은 지역 특성 때문에 평창을 비롯해 강원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찰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평창군 기독교총연합회 회장(평창중앙감리교회) 회장은 "지역 내 유명 사찰들로 인해 평창 내 교회의 영향력은 약했던 게 사실이나 기독교 특유의 역동성으로 비교적 크고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평창의 복음화 비율은 전국 평균 25%에도 못 미치는 20% 정도지만 기도회를 통해 지역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교회가 앞장서 통역 등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 말했다. 101년의 전통을 가진 평창제일교회 구인성 목사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역교회의 꾸준한 성장요인으로 꼽으며 평창의 선교 상황을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구 목사는 "평창은 인구유동이 적고 주민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소 폐쇄적이지만 전도에 애를 먹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을 섬기자 교회에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제 지역 교회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감사예배'와 '유치성공 1주년 백두대간 햇빛기도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교회의 부흥을 이끈 것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백두대간 햇빛기도회'다. 2000년부터 매년 시행한 기도회는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지역 숙원사업 및 결핵아동 돕기 등의 사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

"추방된 선교사 범죄자 취급 폐기해야" 교계 '여권법시행령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반발

정부가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강력 범죄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구별했다. 하지만 경미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 운동이나 포교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들과 위법행위 몰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주장이다. 아프리카 C국에서 활동하던 H선교사는 지난해 말 강제 추방을 당했다. 포교행위가 이유였다. 5년 전 B국에 이어 두 번째 추방이었다. 국내에서 안정을 취하며 다음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인 그는 최근 거론되는 여권법 개정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2번의 추방 경험으로 여권 발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을 위해 봉사한 것뿐인데 한국 정부는 범죄자 취급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대통령을 위한기도시민연대(PUP), 한국교회연회 등은 최근 일제히 입장장과 논평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PUP은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KWMA도 앞서 "개정안이 포교활동, NGO, 인권운동 등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한 활동도 해당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라며 "'23조 2항 3호'를 삭제하거나 부득불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문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23조 2항 3호는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하면 1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한국교회연회도 논평을 내고 "명백한 범죄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회 입법하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국 KWMA 사무총장은 "그동안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종교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일관하면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인의 국외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개정안은 14일까지 전자관보에 게재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미 장의사

제미장은 설립자 Edward D, Jamie의 아들 리안 제이미(Leon Jamie)씨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인정신의 장례식장으로 21세기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고 전통을 중시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제미장의사는
 자체건물과 3개의 채플룸을 갖춘
미국 유수의 종합 장례식장으로
 정성스런 서비스와 편리한 파킹으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고인과 유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미장의사에서는 묘지구입, 비석설치, 한국 운구 등
장례에 관한 모든것을 상담해 드리며
 친절한 한국인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장례 서비스 실시간 중계방송
 (전세계 가능)

뉴욕한인회(KAAGNY) 명예한인
Edward D. Jamie Funeral Chapel, LLC
 141-2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2660 / 무료전화 1.800.450.3498
 www.jamiefuneralhome.com

선교지 소식



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이에경 선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건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반대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는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마치실 것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 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모두 건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였지만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감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인혜는 덥고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인혜는 지난 3, 4월 신학교 방학동안 신학교 부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분은 29살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 스와힐리와 영어를 못하고 자기의 모국어인 "캄바"어만 합니다. 그래서 관장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보며 도전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와서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캄바어까지 하는 것을 보며 말입니다. 인혜가 영어를 가르쳐 주어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혜와 미혜는 11학년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12학년이 되고 대학 준비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내년에 가야 할 대학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기도제목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샤가 신학교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도록 △마샤가 신학교 부설 유치원, 유치원교사 훈련대학, 선교사 훈련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족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특히 예누이와 인혜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메일: isaiah0814@gmail.com

케냐에서 이사야,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케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62:6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선교지 케냐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2월 편지를 드린 후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공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선교지 마샤가, 케냐에서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나누며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기철에는 부분적으로 비를 주셨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비로 인해 씨조차 뿌리지 못한 곳이 있었고 시를 뿌린 곳도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샤가 신학교

마샤가 신학교는 지난 3월 12일 종강을 하고 1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8명(일반과정 2명, 특별과정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이 회여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나가 추수의 일군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한 명의 목회자라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주간은 특별과정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1학년 신입생들이 4명 입학학 하여 특별과정 학생들은 모두 21명이 되었고, 8월에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와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과정은 5월 3일 개강을 하였고 1학년 신입생들이 6명 입학학 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정 학생은 모두 26명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는 1학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2학년의 "조직신학(인간론)", 그리고 3학년의 "사도바울의 선교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늘 은혜스러우며 재정의 어려움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유치원 교사 훈련대학,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 건축

유치원교사 훈련대학에서는 지난 학기동안 3과목을 가르쳤고, 이번 5월 학기에는 7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 24과목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



브라질 동북부 페르남부고 선교여행기 (2)

"우리는 하나였다"

신속자 선교사

닭스터에 없는 것이 없는 색색의 진열된 음식들을 접시에 담기가 조화를 부처뜨리는 것 같아 망서려지기까지 했다. 그날에 식사를 대접하며 옆에 앉아 있던 집사님이 필자와 눈을 맞추며 느닷없이 "은행 쏘파 주세요" 라고 한다. 머뭇거리는 내게 그녀가 한 말이다. "신 선교사님의 저서 '닭 울음소리' 책에서 '구좌변호 주세요'라고 한 한국어에 계신 그..." 하면서 말을 흐리는 것이다. 반씩 '닭 울음소리' 책에 소개했던 흥육구 권사의 삶에 부딪힌 그녀의 열매요, 행함인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 부분에 큰 감동을 받은 듯 했다.

그제야 "그래 그러면 종교차 한 대 사도록 기도할까" 했더니 "우리부부가 종교차 한 대 할까요" 한다. 하나님은 책 속에 소개된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이들의 같은 삶을 이끌어내고 계셨다. 살아 있는 간증은 글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생각에 잠겨보면서 우리는 서로만 아는 은혜 속에 너무나 기쁘게 웃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발이 되라고 종교차를 준비하고 계셨을 줄이야... 왕영 달리며 사역을 감당하는 현지 브라질 목사들의 기쁨이 날을 영혼들을 생각하니 흥분된 마음이 쿵쿵 뛰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주머니가 계속 바로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씨셀로(Cicero) 목사가 살던 씨찌우 아벨파두(Sítio Apertado) 사택에 살며 교회를 돌보게 된 신학생을 만나보니 언젠가 결혼하고 등록비 200헤아이스가 없어서 아들을 돌이나 낳고도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던 가난한 부부였다. 그 당시 그들의 고민을 해결했던 남편의 작은 보탬에 눈물 흘리던 존슨(Johnson) 부부였다. 남편인 째 줌슨은 어엿한 신학생이 되었고 아내의 주교 선생이 되어 씨셀로 목사가 살던 씨찌우 아벨파두 사택에 살며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교회 뒷방 작은 공간에 음료수 3병과 간단한 케익이 준비된 식탁이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하는 시간인데도 성도들의 반가운 얼굴들과 안면이 있다고 슬그머니 다가서는 아이들의 사랑 표현이 우리 부부의 가슴을 열게 해주었다. 그간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나누며 음료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웃을 나누어주자 그 자리에서 입고는 부모들과 함께 기뻐한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입었던 옷들이기에 그들에게서 원래 옷 주인이었던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아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담으며 나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 두어 개씩을 더 받아 갱긴 채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 봐 품에 꼭 겨안은 모습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선교를 한 16년 동안에 열린 크고 작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나무가 열매를 구하시던 주님의 사창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부! 부족하기에 무디고 형편없기에 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임을 주님은 아시리...

현대 바울이라 별명을 지어준 씨셀로 목사는 비록 종교지만 우리가 사준 자동차를 몰면서 오스말 목사가 시무하던 바토스교회와 씨찌우교회를 오가며 설교를 하고 방송설교와 더 많은 시간을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한다. 새끼망고 빵 짹 짹 반짝이는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복음의 불을 뿜어 낼 듯하다. 우리 부부는 그의 지질 줄 모르는 열정에 늘 할 수만 있

다면 무엇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그와 같은 심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16년의 사역이었을까? 반문해보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움뿐이다.

씨셀로의 아들 지아고에게 우리가 전자 울건을 가르쳤던 보람으로 이제는 본 예배에서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다고 했다. 실로 주님이 행하신 작고 큰 놀라운 변화들을 일일이 다 어찌 기록 하겠는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뿐이다.

남편이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저녁 식사로 파티를 열어 서로 서로 열애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마음껏 기뻐하면서 "바 이 비라 봉 빠스톨"(좋은 목사님이 되세요)이라하며 미래를 심어주는 마음으로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었다. 그 시간이야말로 브라질 동북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할렐루야!

쌍파울로 리메이라 신학교에서 남편 김목사에게 배웠던 제자 네이말 (Neimar)목사가 사모와 함께 쌍조제 도 에지토(Sao Jose do Egito)에서 그리고 벨스 목사부부가 따비라(Tabira)에서, 다비 고미스(Davi Gomes) 목사부부가 40일 된 딸아기를 안고 쌍파 페레지냐에서, 그 외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바토스 성도들까지 우리는 모두가 주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이었다. 제거나 장로님 택에서 일하는 처녀의 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한다기에 찾아 심방을 했다. 남편 김 목사가 설교를 한 후 네이말 목사와 제기노 장로 그리고 필자의 합동 작품이라고 해야 할지...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바 드디어 활자와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로 굳게 약속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네네"(Nene)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여 성도와 제기노 장로의 사위 해미 장로가 경영하는 업소에도 심방을 할 수 있었다. 떠나는 시간이 다 하도록 가정을 방문하고 성도들과 잎사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언제 만나느냐는 아쉬움을 나눌 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이 친숙해 있었다.

제기노 장로의 아들 후마아울도(Romualdo)의 슈퍼마켓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호몰로(Romulo) 장로를 만났다. 가난과 좌절 가운데 장로 사표를 던지고 많이 외로워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간이 허락지 않아 찾아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하계하심에 작고 큰일들이 어찌 우연일수 있겠는가? 비 맞은 참새처럼 그의 추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 사랑이 허무 커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그를 향한 신 필자의 아픈 마음이 어찌 그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아픔에 다가갈 수조차 있으랴 마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그만 눈시울을 적시며 다시 교회로 나오겠다고 했다. 그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텐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세에 특별하게 뽑아내신 신학생들이 하나 같이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을 기도하면서 네이말 목사의 종교차를 타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 떠났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주일 7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6-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536-1번지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http://bimpoch.org
Tel: (82)31-984-2850,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131-231)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저녁 예배: 오후 7:30
Tel: (031)977-8754-5
군포시 금정동 570-10호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27-3585
39-348-339-1723, 39-068-944-2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82)2-969-9988, Fax: 9927-1008
서울 김해구 수유동 221-49 (142-073)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새벽 1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8-808)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607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667-9, Fax: (02)2632-6668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2-3 (158-053)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찬양과 경배)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후 6:30)
Tel: (604)584-9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 기도회: 오전 4:30
(1부) 새벽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030)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매일)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45동 715-26호

담임목사: 김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
Tel: (82)2-796-6579, 사해(82)2-338-5671
서울 마포구 도산동 49-45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해(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리동 419-2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 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해(02)389-2235
(110-290) 서울시 송파구 인사동 137번지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Tel: (82)2-849-9191, 사해(82)2-844-157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665-11

담임목사: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8-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624)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2:00
심야 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구 제기 2동 146-7

담임목사: 이정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6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259-12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2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3-838)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9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예배: 오전 10:30(오*일*3)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주일예배 4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일*3)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김포시 장원시 신촌동 20-3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죽동 302-67 (140-031)

전/강/칼/럼 (8)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정신건강 서비스”

몇 년 전에 심장 클리닉에서 만난 S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다 목뒤가 빠근하며 원인이 없이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내과진찰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우울증 약을 처방해주었다고 했다.

잠자기 전에 약을 며칠 복용했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했다. 우울증 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정도를 측정할 결과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다. 입원할 처지가 아니어서 정신과 클리닉을 추천해주었다.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우울증이 아주 호전돼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환청과 편집 증세로 고생하던 A씨는 집을 나간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애타게 기다리던 호환을 천국으로 여기며 지내고 있었다. 이민 생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A씨였다. 인근의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체류신분 문제로 염려가 되었으나, 가족과 친구는 경찰의 도움으로 A씨를 정신과에 입원하게 하여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다행히 긴급 의료치료보조비 혜택도 받았다.

건강한 정신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긍정적인 태도로 사물을 보며,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이 약간 또는 심하게 정신 상태의 불안정을 호소한다. 즉, 스트레스로 온전한 정신에 머물기가 힘든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위의 두 사례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대처 능력을 상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들이다. 자신을 해치거나 남을 해하려는 생각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 수도 있다.

위의 두 사례는 성인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심하게 고생하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의 경우이다. 증상들이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뇌에서 사고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계의 화학물질이 불균형을 이뤄 약물투여법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심리치료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독립적으로 혹은 함께 사용해 치료한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증상치료에 기여를 하지만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변비나 체중 증가, 반응 속도의 저하, 시야의 흐트러짐 등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증세가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전문인과 의논하여 처방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과정이나 치료결과를 위해 증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치료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와 동정은 물론 치료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알면 갑작스러운 당혹감을 줄일 수 있다. 신앙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가족과 친지와 신앙지도자의 지원을 포함한 다면적 치료가 강조된다.

정신분열증은 사고과정의 분열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증상에는 의처증과 같은 편집증, 망상, 환청과 환시, 말의 논리 결여, 행동의 무질서, 환경과 상황에 무반응, 표정과 의지 결여 등이 있다. 일과 학업 그리고 대인 관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관리 및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

우울증(Depression)은 정서 불안과 관련된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슬픔과 비관, 절망감, 의욕 및 흥미 상실, 죄책감, 자기혐오 및 비판, 자신감 및 자존감 상실, 자살 충동, 울고 싶은 심정, 동요 및 불안 초조, 무가치한 자아감, 결정 능력 상실, 식욕과 수면의 상승 혹은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과 피곤, 그리고 성관계의 무관심 등으로 나타난다.

앞의 첫 예와 같이 우울증세가 심해 몸의 여러 부분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조울증(Bipolar Depression)은 일정 기간 동안 우울 증세를 보다가 때로는 광기가 넘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우울 증세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인다. 지나친 자신감과 아이디어의 과다 표현도 보인다. 그러나 한 생각이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신 분열증과 우울증의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의든 타의든 정신과 응급실을 찾아가 전문 의료부터 진단을 받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병동으로 이동되어 입원이 된다. 모든 치료는 환자 혹은 가족의 동의로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의 신분과 치료 사항에 관해서 비밀이 보장돼 보호를 받는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환자나 가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역원을 찾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거부 받는 경우는 없다.

요약하면, 정신 분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증상의 조기발견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나 정서 및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면 정신과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 증상치료를 받아야 한다. 단기치료가 되지 않으면 장기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신장애자로 판정되면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비 및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은 한국교회 해외선교 100주년

한국세계선교협 2012년 2월 필리핀서 기념 포럼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내년으로 100주년이 된다. 1907년 이기 풍 목사가 제주도에 파송된 첫 선교사라면 본격적인 타문화권 선교는 1912년 장로교 총회에서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국교회는 이듬해 박태로, 김영훈, 사병성 선교사를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파송하면서 해외 선교의 문을 열었다. 한국세계선교협(KWMA)은 장로교 총회가 조직돼 해외선교사 파송을 청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을 100주년으로 정하고 2012년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100여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아시아 선교 역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타문화권 선교 역사=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활동은 1945년 해방 이전까지 미주, 일본, 만주, 시베리아,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산둥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흩어진 한국인 이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였다.

1912년 9월 장로교 총회가 창립되고 그 기점으로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912년과 다음해 총회는 전국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선교주일로 지켜 그 헌금을 해외 선교비로 총당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국 북장로교 찰스 클락(곽안련)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산둥성 선교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912년 조선총회가 창립됐다. 이 경하할 만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는 대연보를 거출하여 3인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 이는 조선 교회가 선교 받은 지 28년밖에 안 된 때였다. 실로 세계에 유(類)가 없는 경이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랴."

산둥성 선교사는 1937년까지 총 5기에 걸쳐 9명이 파송됐다(표 참조).

시기	파송 연도	선교사	지역
1기	1912년	박태로	라이양
		김영훈	
2기	1917년	사병성	라이양
		병소현	
3기	1918년	홍상현	지모
		박상순	
4기	1922년	이대영	지모
		김소현	
5기	1937년	방지일	청다오

(자료:한국세계선교협회)

선교사들은 라이양(萊陽)을 비롯해 지모(即墨), 청다오(靑島) 일대에서 활동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방지일 목사는 37~57년까지 20년 간 청다오에서 활동한 제5기 선교사였다.

◇산둥성 선교사들이 주는 교훈= 당시 선교사들은 현대 선교 관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 중국교회에 소속돼 활동했다.

“선교 비전 키워 지구촌 이웃에 전파”

한민족재외동포 세계선교대회 개막

“한민족 재외동포는 선교사다.” 흠어진 한민족 재외동포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 주고 한국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1 한민족재외동포 세계선교대회'가 11일 밤 서울 양재동 뿔뿔선교센터에서 기독교선교협(원장 이형자) 주최로 개막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2000여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이주민)가 참석했다.

13명의 주강사를 비롯한 18명 워크숍 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 세계로 흠어지게 한 이유는 마지막 남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자 경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에 서툰 상당수 참가자들은 동시통역기에 의존, 강사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들으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려고 애썼다. 이들은 개막식에서 한 북 패션쇼와 국악 찬양 등을 감상하며 한국인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12일 주강사로 나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조목사는 참가자 중 절반이 40대 이하 한인들이라는 점을 감안,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조목사는 “사람이 꿈을 가지면 그 다음은 꿈이 사람을 이끌어간다”며 “큰 꿈을 갖고 전진하라”고 격려했다.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피터 차 교수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의적 옮기심’으로 표현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기독교선교협(원장 이형자)은 “디아스포라 선교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회장 이형자 원장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선교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디아스포라 지역대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후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대회 장소를 옮겨 ‘비전나이트’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 찬양과 말씀 집회를 통해 선교사적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민족재외동포 세계선교대회”는 전 세계에 흠어져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모아 선교 사명을 고취하고 한국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선교대회다. 주최 측인 기독교선교협(원장 이형자)은 “당장 할렐루야교회 권사)은 동포 2세와 3세를 초청, 해당 국가의 선교사로 삼자는 취지로 대회를 열었다. 재단은 참가자 중 550명에게 한국 방문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북미와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등 대륙별 선교대회도 1년마다 개최한다.

지역	동포수
일본	91만2655
중국	233만4671
미국	210만2283
유럽 & 독립국가 연합	65만5843
중남미	10만7029
중동지역	1만3999
아프리카	957
4000명 미만 국가동포	6만3516
총계(176개국)	682만2606

(자료:외교부 2009)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보급처
성서보급회
(할렐루야백화점부설)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학,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량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연금위원, 드레스-정장양복

미중동부 지사 워킹!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판대형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판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판 최후 GDMC 확보! 한국디자인 전문회사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 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크리스천 가정상담



염인숙 전도사(기독교상담소 소장)

자녀가 당한 성폭행 상처 도와 주고싶어

제 자녀가 반복적인 성폭행의 상처가 있었는데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침묵하면서 내면의 고통을 혼자 이기느라 고통 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됐지만 아직 이 아픔에서 회복되지 못해 괴로움 가운데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척 안에서 신뢰를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서 이러한 피해를 받았다는 충격과 자녀가 그 동안 받았을 상처가 이중적인 고통으로 더해져서 제 마음 같아서는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혼자서 쓸어안은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부모로서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까지 들어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다. 이제야말로 고통스러운 혼자의 동굴에서 나올 때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내면의 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색깔을 하게 된 경험을 자신의 자아와 분리시켜 객관화 시켜서 바라보고 이를 재해석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면치유를 경험해 하는 심리치료의 접근이 있지만 크리스천 으로서는 성령님을 초청하여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내적 치유(Inner Child Healing) 과정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를 벗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성령님의 손길 가운데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과정을 치료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폭행은 시대적 특징인 인본주의의 강제로 윤리적인 경계가 모호한 가치관의 틈을 타고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인의 병적 욕구와 미성숙으로 인하여 의사결정과 예상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의 틈을 뚫고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통하여 영혼을 유린시키는 범죄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신앙의 능력의 약화 사이에서 참된 창조적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적인 발전이 급격한 시대일수록 가정에서의 윤리 도덕 가치관의 교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성인 목회부보다도 영혼을 쫓는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정하는 자녀세대는 인격적, 도덕적 미성숙의 면모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빠른 습득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공격을 이기며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말씀의 능력 입지 않으면 실존할 가능성이 많아서 영적 리더십은 안일할 틈이 없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 가운데서 성장할 때 자녀들은 예기치 않은 유혹을 대면했을 때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상의하며 적극적으로 도움 책을 찾을 수 있는 통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권위적이거나 비판적인 양육 태도를 극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반석과 같은 예수님께 달려와 감, 위로와 힘을 얻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 어떤 문제든지 상의할 수 있고 자녀의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착한 닻(Anchor)처럼 흔들리지 않는 해결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삶과 신앙의 자세를 지켜 가야 합니다.

부모가 정서적 영적 지원 감당해야

요즘 청소년들은 무차별한 미디어의 영향과 다양한 가치관의 혼돈, 윤리의식 부재의 영향으로 성적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성교육은 부족하여 이로 인한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자녀의 미성숙과 영적 환경의 악화로 기대하기 어렵기에 크리스천들은 자녀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히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때 보다도 성장하는 자녀에게 성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전통적인 선입관과 주저함으로 자녀에게 예방교육을 충분히 못 해주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예방을 포함한 성에 대한 교육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침투하는 성 개방의식과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 정보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성숙한 관점을 갖기 전에 성적 개방에 노출되어 호기심에 대해 도움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무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유혹에 맡기거나 희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정보의 자극은 가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우연히 겪는 사고만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친, 가족, 재혼으로 인한 혼잡가정 안에서의 친족관계 심지어는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공동체 안까지 성문제가 확산되어 중요한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 경건성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성범죄의 근절이 어느 때보다도 시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증상으로 시달려왔음에도 이를 외부에 말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과 내면의 두려움으로 더욱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혼란을 다루지 못하는 갈등, 분노, 슬픔, 죄책감, 두려움, 수치감 등은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 동안 영혼을 억누르다가 내면의 대처기제(Coping mechanism)가 약화되면서 증폭하여 육신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오랜 기간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과 감정의 매듭을 벗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은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성범죄를 더욱 힘들게 다루어하는 이유는 힘(Power)을 행사할 권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받은 자녀가 평생 동안 자아 이미지에 손상을 가짐으로 인생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병적인 성행위로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녀가 올바른 치유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심한 인격 및 정신장애로 발전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경험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과 떳떳하지 않는 자아가 자존감의 위축을 가져와 자신을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일을 막아 혼자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신을 방어해가면서 우울증(Depression)을 동반하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 식이장애나 육체 학대 또는 동성애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순수한 사랑을 왜곡하게 해석하여 남녀의 관계를 바르게 성상지키지 못하는 장애적 관계의 가능성을 가짐으로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상처를 안고 있는 자녀들은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이를 즉각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게 됩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열번째 (창35:1-15) 찬43장

야곱의 육적 소욕을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은 베엘의 서원을 지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한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약의 가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베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둘째, 내면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일을 빙자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고

약탈하는 행위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내면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열 베엘(베엘의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나 나타나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언약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화 시온의 노래 (사54:1-17) 찬394장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영광을 내다본 이시야는 왜 "노래하라"고 선포합니까(1)? 첫째, 하나님이 장막터를 확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2). 포로에서 석방되는 것도 기뻐할 일인데, 그들이 거하는 장막이 세계화되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8-10). 장막터가 넓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저주요 어두움만이 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이 깔려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입니다(13-15). 하나님은 창조자, 구속자, 거룩자, 주권자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참 평화가 있고 평안이 생깁니다. 수천년 전의 이시야가 본 영광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그의 형상화해 가는 바로 그 안에 거함시다(요8:12).

수 갈구의 은혜 (사55:1-13) 찬486장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본문은 기쁜 것, 살진 것을 얻음으로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짙레를 화석류 나무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그 아래서 안식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이 은혜를 어떻게 갈구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8-13).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8-9). 주의 생각의 표현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의존사색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1). 목마르고 돈 없는 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회를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 그를 불러야 합니다(6-7). 실로암 소경처럼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 눈을 뜬 것처럼 주어진 기회를 사야 합니다. 덩달한 마음을 애용하며 은혜의 주만을 사모합니다.

목 이방인의 구원 (사56:1-12) 찬499장

이시야는 이방인의 구원 성격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은혜로 구원받는 종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울 때는 은혜의 날 곧,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신약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은혜를 크게 받아야 합니다(고후6:). 둘째, 일을 중심한 구원입니다. 유대인이 지키지 못한 안식일준수와 언약의 순종은 이방인 택한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2). 유대

인의 기도집은 만인의 기도집으로 변하는 기이한 일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구원입니다. 죄사함, 임마누엘,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시106:). 셋째, 소생하는 구원입니다. 34절에 마른나무라 하지 말라 한 이유는 더 나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때 이방인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금 회개하는 자 (사57:1-21) 찬215장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복의 약속을 보인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에 관해 무엇을 배움습니까? 첫째, 타락상-우상 숭배의 죄는 의인의 고난을 결말여 여기는 죄가 풍도가 되게 했습니다. 거저 얻은 헌신함으로서 참 공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더 밝은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는 구원이 없고 심각한 멸망에 빠져 듭니다. 둘째, 회복의 길-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길은

회개와 믿음입니다(요일1:9). 환난 날에 감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입니다(시50:). 그때 하나님은 건지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셋째, 그 결과-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주의 위로를 받아 소생(15)과 2차(18)와 3차(21)를 얻으며 4기업을 얻습니다(13).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동일한 믿음과 행함입니다.

토 참된 금식 (사 58:1-12) 찬403장

1절에 크게 외치는 자는 이시야이고 대상은 "내 백성"인 야곱의 집입니다. 금식으로 나타난 유대의 외식된 경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거짓된 금식이란(2) 하나님을 알리는 열망에서 시작하나 방범이 진 실치 못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3) 금식 하면서 다투고(4) 자기를 공격하는 회개가 결여되며(5) 소자를 압제하고 공휴일이 없었습니다(6-7). 한마디로 회

개 없는 금식은 종교행위에 불과하지 목적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 참된 금식이란 하나님을 알리는 열망으로 시작되고 회개와 믿음에 의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금속한 치료(8)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8) 기도응답(9-10)과 영혼의 만족(11-12)을 얻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해결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삶과 신앙의 자세를 지켜 가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자녀의 고통 뿐 아니라 늦게서야 자녀의 상처를 알게 된 부모님의 아픔도 충격적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정보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가 부모의 회복도, 상대방에 대한 용서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의 용서와 회복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최선의 결정을 믿음 가운데서 내릴 수 있는 정서적 및 영적 지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끌고 간다면 또 한번 힘(Power)을 통한 자녀의 의지를 위

촉시킬 수 있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상은 크지만 이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위로와 간섭하심을 더욱 의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통스런 상처를 통하여 이 사회와 시대가 더욱 분명한 윤리적 경계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면에서 계속)

마지막 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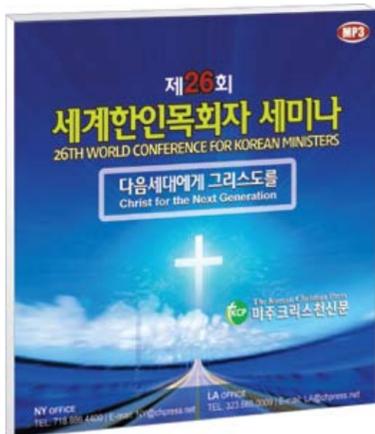
제 목회를 돌아보니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김 목사

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개척된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위해 너그럽게 지원을 약속해주시는 당회와 장로님들과 개척교회 돕기 특별모금활동을 통해 사랑의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또 하나의 방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말씀의 종이 되시고,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와 명철로,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삶을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연선된 17강(목회자, 평신도 각각)과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의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해전, 박환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인/터/뷰

안광태 선교사(몽골)

“연합선교로 중앙아시아 품는다”

“몽골선교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연합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몽골에서 선교사로 헌신해온 안광태 선교사가 몽골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안 선교사는 몽골목회연구원으로 사역을 시작, 몽골연립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관계와 실천신학 등을 강의해왔다.

한국에서 23년간 목회를 하며 14년간 남미선교에 관심을 갖고 페루에 선교사 파송 및 후원하던 그가 몽골선교에 뜻을 두게 된 것은 구소련의 붕괴로 몽골선교의 기회가 오면서 부터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간 몽골선교를 하게 됐으며 선교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몽골선교야말로 연합으로 할 때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연합의 모델을 찾은 것은 캐나다유나이티드교회와 호주유나이티드교회 등 교단시스템이 이들 교단처럼 몽골역시 하나의 교단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몽골에서 활동 중인 한인선교사들은 350명 정도 됩니다. 그중 영여권이 150명이고요. 이들 선교사들은 교단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계전투식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등 서양선교사들을 보면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한인선교사들도 어떤 교단에서 파송 받아왔던지 몽골현지에서는 선교창구의 일원화를 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합의 한 예로는 열악한 선교지의 환경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보



내 치료를 받게 하는 것. 특히 몽골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한국 등 선진기술이 발전된 국가에서는 손쉽게 치료가 가능한 것도 이곳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불치병 판정을 받기도 한다는 것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LA의 모교회 장로님이 1억원을 내주셨으며 몽골 울란바토르 한인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 고대안암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몽골의 많은 신학생들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으로 유학을 보내 학위를 받게 하고 있으며 그중엔 교수요원으로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연합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연합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혼자서 이 일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했는데 연합을 하니 적은 비용으로도 이와 같은 큰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연합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한인선교사들은 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선교사는 한인

지도력을 이양해줘야 하는데 리더의 자리를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니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교가 어렵게 된다는 것. 이런 갈등구조가 심화되다보니 원치 않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들을 몽골지도자들이 비디오에 담아 정부기관에 제보하는 일이 발생해 선교가 위축된다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몽골이야말로 사심을 버리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낼 때 선교는 빛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교사들의 몽골선교가 힘겨워하는 이유는 관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의 사상에 전통적으로 이어온 유교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봐요. 몽골은 중국의 인접 국가이고 아시아국가라 유교문화권이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나라이기에 사고방식이 서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다보니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내가 리더가 되고 몽골 현지인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조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즉 선교는 궁극적으로 현지인 선교사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몽골선교는 몽골정부에서 발급되는 종교비자 소지자들에게 한해 선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몽골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이 한두 문화권과 모슬렘권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몽골 선교에 임하다보니 선교가 힘겨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몽골에서 기독교는 외래종교입니다. 그러나 자국민들에게는 선교의 자유가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종교비자가 아닌 NGO비자나 언어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발급받고 선교활동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 많은 경우가 종교인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있으면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 추방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안 선교사는 몽골의 경우 그곳이 라마불교의 나라이기에 불교 사원보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서 그 것에 대해 라마불교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수월한 편은 아니지만 종교비자소지자에 한해서는 선교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몽골선교에 있어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몽골은 여성들의 파워가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선교에 힘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여성목회자들의 역할이 지대한 곳이지요. 그러나 일부교단 목회자들이 여성목사안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할뿐만 아니라 집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해요. 선교는 선교지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가갈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안 선교사는 몽골이야말로 중앙아시아 선교에 가장 적합한 민족

이라고 강조했다.

“몽골이 주는 선교의 효과는 상상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연결돼 있거든요.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모슬렘 국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경이 있고 각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몽골이 각성기일 때는 국경의 개념이 모호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는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몽골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몽골이 예전처럼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몽골 민족들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의 각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몽골사람들에게 입국심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몽골은 6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신자들은 6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몽골현지 목사는 167명이라고 밝힌 안 선교사는 몽골교회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에 교회를 많이 세워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몽골의 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교회에 사역할 목회자와 그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안 선교사는 현지에서 몽골에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자 자신이 교회에 남게 되면 후임 목회자가 소신껏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 몽골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안광태 선교사는 힘 닿는대로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선교창구 일원화 바람직...선교비자 받으면 문제없어 유교적 사고방식 고수하면 현지인과 갈등 충돌 생겨

2050년 미국-이민감소 · 교외지역 도시화

미 센서스국, 전세계 228개국 인구추이 분석자료 발표

약 40년 후 미국과 전 세계 모습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2050년 미국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미 센서스국이 예측자료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미국의 이민은 줄어들 것이며, 인종별 출신율의 차이로 각 나라 인종 구성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비(非) 히스패닉계 백인 비율의 증가로, 과학의 발전으로 약 10년 정도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

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전문학적인 부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향후 40년 내에도 역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인들의 삶의 모습도 크게 변화된다.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주거지역인 교외 지역도 최근 주택 시장의 침체와 연료비 상승, 경제와 환경에 대한 염려로 도시화돼간다는 점이다.

채프먼대학 도시미래연구원인 조엘 코트킨은 “미래의 교외지역은 도시들보다 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1950년대만 해도 교외지역은 백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현재는 증가하는 소수인종과 이민자들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 밖에 집을 갖고 도시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해왔으며, 각 지역의 특징이 잘 보존된 교외지역에 매력을 느껴왔다. 최근에는 많은

교외지역들이 타운 센터, 상점들,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메인 스트릿을 만드는 등 교외지역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명의 변화도 기대된다. 현재 미국 남성의 평균연령은 75.6세이며, 여성은 80.8세인데, 향후 약 10년 정도 더 늘어날다는 것이다. 뉴욕대학의 미래예측 연구소장인 네일 브리그 박사는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인들은 미래에 더 부유해질 것이며,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필라델피아 소재 드렉셀대학의 로버트 필드 박사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미국의 수명은 연장되겠지만, 비만이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 삶의 방식에 따른 요소로 인해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지역의 암초, 불량을-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 나성 북부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웨슬리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국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국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알바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수교교회, 은혜평강교회, 은혜한국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을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표지 디자인에서 패키지까지 할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월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인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발 워크 플로우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스펙터미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기준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장율의 ILV Enterprise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회성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